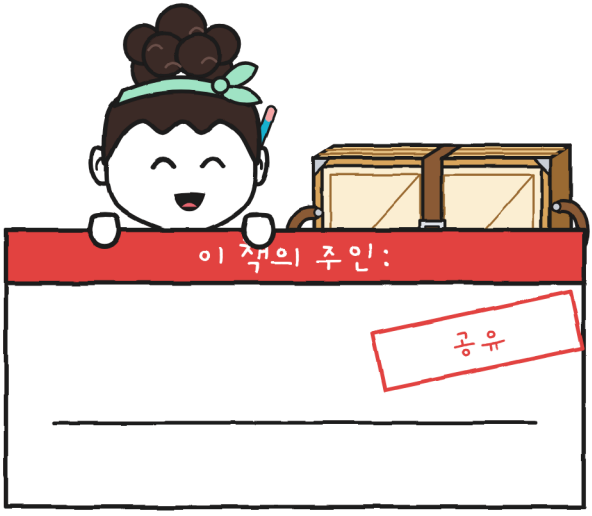


공유. 다 들어가. —J.

이걸 주웠다면 접어서 돌려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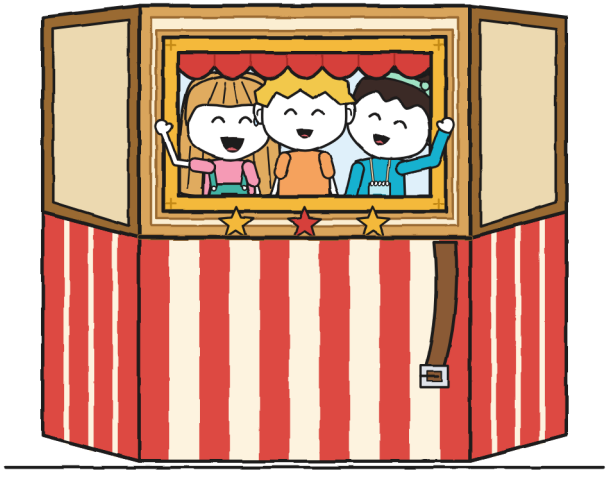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용은 없고,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로 옮길 때는 마지막 쪽을 봐. —J.

불가능 배달 · 6

자리 하나, 우리 셋

LinguAula



(구내의 공책)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불가능 배달 · 6
자리 하나, 우리 셋

시리즈 여섯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반송해 주세요', '여기선 안 돼, 부스러기!', '케이크 하나, 우리 둘'

글과 그림: LinguAula

한국어판: LinguAula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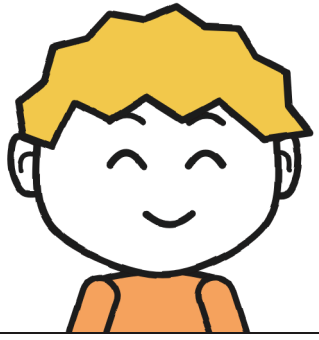
글꼴: Gowun Dodum, Gaegu, Nanum Pen Script, Nanum Gothic Coding, Andika, Patrick Hand, Caveat, Courier Prime (SIL OFL 라이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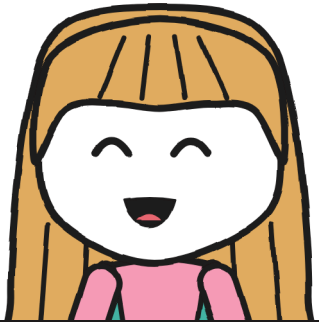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셋이서 든다. 손잡이는 골랐어. —J.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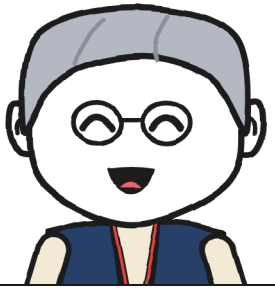
구니. 센티미터로 잰다. 이번 주에는 다른 것도 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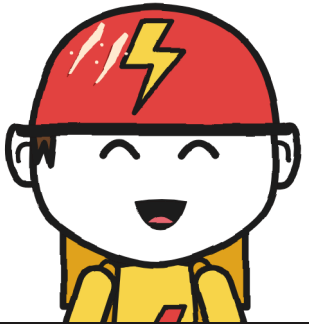
훌리타. 길을 안다. 그걸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노아. 훌리타의 오랜 친구. 걸음으로 잰다. 걸음을 늘 신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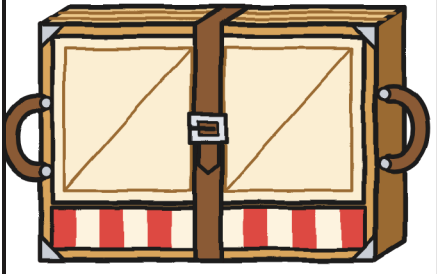
이레네. 연극 공방을 맡고 있다. 어디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멈춰'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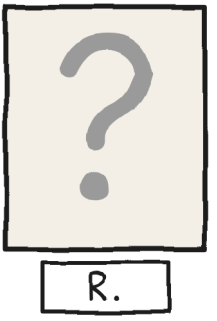
토쇼. 번개배송, 그리고 가게. 시간을 재고 의견은 없다.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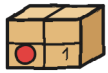
마라. 택배를 빌려준다. 상자는 놓지 않는다.



6번 택배. 상자에 들어가는 극장. 벨트를 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펼쳐진다.



R. 보내는 사람. 이번에는 물품 목록에 한 줄을 남겼다.



제1장

왜 셋이 필요할까?

5권은 눈금판 위의 바늘 두 개로 끝났다. 나는 그걸 그대로 덮었다. 어느 바늘에게도 비켜 달라고 하지 않았다. 다 쓴 공책은 놔둔 그대로 남는다. 그게 좋은 점이다. 이제 아무도 따질 수 없으니까.

6권은 주황색이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한 번에 껍질이 벗겨지는 귤 같은 주황색이고, 한쪽 모서리에는 가게 도장도 찍혀 있다. 마라 아줌마는 공책을 계산대 위, 분홍색 공책 옆에 놓아두고는 이미 정리된 상자들을 정리하러 안쪽 창고로 들어갔다. 마라 아줌마는 공책을 건네주지 않는다. 네가 볼 자리에 놓아둘 뿐이다.

첫 쪽에는 나만의 전통이 있다. 2권에는 공식, 3권에는 기밀, 4권에는 최종, 5권에는 조용히를 썼다. 자물쇠가 달린 말 네 개. 네 개 다 나보다 훌리타가 먼저 읽었다. 이번에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찾았다.

맨 위에는 배달 공책 6 · 주인: 구니라고 적었다. 원래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 밑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

공유.

그리고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혹시 무엇을 몰라서인지는 나도 몰랐다. 곧 알게 됐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훌리타는 계산대 건너편에 있었다. 공책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로 끌어당기더니 초록색 매직펜 뚜껑을 열고 그 반 쪽에 글씨를 썼다. 글씨가 너무 커서 여백까지 나갔고, 잠깐 생각하더니 여백으로 계속 이어 썼다. 그러고는 "내가 안 그랬어" 하는 얼굴로 뚜껑을 닫았다. 그 가게에서는 이제 모두가 가진 얼굴이다.

나는 첫 쪽을 내 글씨로 공유했어. —J.

차지한 크기를 재 보았다. 아래쪽 반이 통째로였다. 내 단어는 주위에 남겨 둔 공기까지 포함해서 위쪽 반을 차지했다. 두 반쪽. 아주 합리적인 나눔 같았다.



이 공책을 처음 읽는 사람을 위해 늘 하던 설명을 한다. 가게 이름은 불가능 배달이고 주인은 마라 아줌마다. 마라 아줌마는 마녀이고 보라색 모자를 쓰며, 찍을 때마다 꺼진 초 냄새가 나는 불꽃이 튀는 도장을 갖고 있다. 왼쪽 선반에는 반송된 택배가 있다. 아무도 전하지 못한 택배들이고 보낸 사람은 전부 R.이다. 받은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라벨에 서명하지 않으면, 택배는 동틀 무렵 날아서 자기 선반으로 돌아간다. 처음엔 스무 개였다. 훌리타와 나는 다섯 개를 전했다. 용 알, 다리 달린 씨앗, 작은 종, 도착 팀 하나, 그리고 엘리아 아줌마 빵집의 받침대. 벽에는 초록색 글씨로 남은 택배 15라고 적혀 있다. 번개배송의 토뇨는 의자 옆에 엎어 둔 상자를 자기 자리로 쓴다. 아직은.

월요일, 엘리아 아줌마의 쪽지가 있던 다음 날, 나는 학교가 끝나고 곧장 가게로 갔다. 훌리타가 봉투를 들고 계산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봉투 색인 초록색도 파란색도 아니었다. 청록색이었고, 닫혀 있었다. 훌리타는 그걸 두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잡고 있었다. 뜨겁기라도 한 것처럼.

"집배원 아저씨가 가져왔어. '불가능 배달 가게 앞'이라고 쓰여 있어. 안 열고 있은 지 좀 됐어."

"얼마나?"

"28분." 토뇨가 자기 상자에서 시계를 보며 말했다. "동네 신기록이야."

토뇨는 가게 안에서도 헬멧을 쓰고 있었다. 번개 같은 두 줄 발톱 무늬가 있는 헬멧이다. 시계는 소매를 걷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소매 밖으로 차고 있었다.

나는 훌리타를 안다. 훌리타 손에 있는 닫힌 봉투는 훌리타가 덮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만 닫혀 있다. 28분은 참을성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는데, 그게 뭔지 나는 몰랐다.

내 꺼 아니었어. 내 꺼 아닌 봉투는 세 배 무거워. —J.

마라 아줌마는 손톱 하나로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필요한 만큼만 찢었다. 편지는 또박또박한 어른의 글씨였다. 줄 끝에서 휘어지지 않는 글씨.

"저는 주민센터 연극 공방을 맡고 있는 이레네입니다. 물품 목록을 정리하다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접이식 미니 극장: 미수령'. 혹시 그쪽에 있나요? 31일 토요일은 동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접힌 미니 극장이 저희 마당에 도착하고, 세 사람으로 된 한 팀이 옮겨 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노아 팀에는 셋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아직은 노아 혼자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다른 글씨로, 작고 곧게, 청록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훌리타: 나야! 나 이제 연극 해. 택배 잘 아는 누군가를 데려와. — 노아"

훌리타는 서명을 읽더니 입꼭지가 한쪽만 올라갔다. 말하지 않기로 한 일이 생각날 때 짓는 표정처럼. 훌리타는 "노아"라고 작게 말했다. 천 번쯤 지나다닌 길 이름을 말하듯이.

'택배 잘 아는 누군가'. 그게 나였다. '택배'는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는 덜.



5시에 두 사람이 왔다.

이레네는 서류철을 들고, 주머니가 가득한 감색 조끼를 입고, 목에 호루라기를 걸고 있었다. 머리는 짧은 회색이었고 동그란 안경을 썼다. 그 안경으로 시키지도 않은 물품 조사를 하듯 가게를 선반마다 훑었다. 노아는 끈에 매단 수첩을 목에 걸고, 청록색 연필을 귀 뒤에 꽂고 있었다. 머리는 곱슬곱슬한 높은 올림머리에 민트색 스카프를 묶었고, 스웨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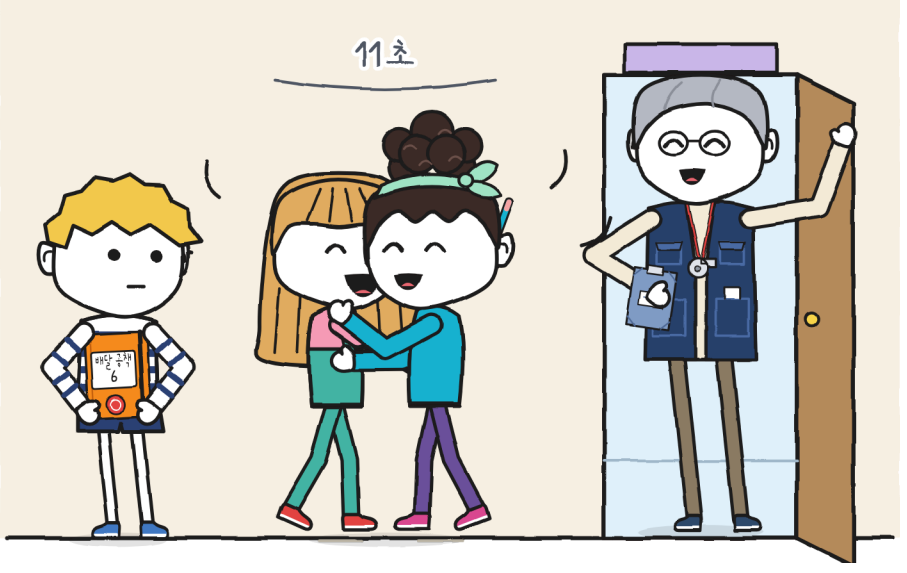
봉투처럼 청록색이었다. 노아는 모든 게 찾을 필요 없게 제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 같았다.

훌리타는 문을 열지 않고 계산대 밑으로 빠져나와서 둘이 껴안았다. 한참 껴안고 있어서 나는 시간을 잴 수 있었다. 11초. 나는 공책을 들고 한쪽에 서 있었다. 공책은 이럴 때도 쓸모가 있다. 손에 들 게 생기니까.

"얘는 구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택배를 잘 알아."

"안녕, 택배 잘 아는 구니." 노아가 말했다. 그러고는 수첩에 내 이름을 적었다.

방금 붙여 준 별명까지 통째로 적었다. 서 있던 자리에서 보니 나는 그 쪽의 두 번째 줄이었다. 첫 줄에는 '훌리타'라고 쓰여 있었고, 밑에는 이미 끝난 일처럼 줄이 그어져 있었다.



마라 아줌마는 파란 의자에 올라가 선반에서 6번 택배를 내렸다. 다른 것과 똑같은 상자였다. 더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라벨에는 타자로 친 다섯 줄이 있었다. 6번. 마당 공방. 두 문으로 입장. 접은 채로 배달할 것. 그리고 늘 그렇듯 아래에 보내는 사람: R. 그 둘레로 반송 도장이 아홉 개 찍혀 있었다.

"도장이 아홉 개." 훌리타가 말했다.

"'두 문으로 입장'이래." 노아가 읽었다. "무슨 두 문이지?"

이레네는 몰랐다. 마라 아줌마도 몰랐다. 나는 물음표를 붙여 적어 두었다. 뭔가를 모르는데 알아챘다는 건 남겨 두고 싶을 때 내가 하는 일이다.

"아홉 번 갖다줬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월요일에는 바느질 모임이, 수요일에는 합창단이, 금요일에는 체스 모임이 문을 열었죠. '공방이요? 여기 아니에요.' 공방 이름으로 서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하는 동안 나는 세 칸 만화로 그렸다. 같은 문 앞에서 상자를 옆구리에 낀 마라 아줌마. 문에서는 차례로 바늘과 실, 음표, 체스 말이 나왔다. 체스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체스에서는 조용히 있으니까. 그 밑에는 새벽에 가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상자. 아홉 번.

"연극은 마당에서 연습해요." 이레네가 말했다. "그리고 마당에는 초인종이 없고요."

이레네는 서류철을 열어 마라 아줌마에게 주민센터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여 주었다. 마라 아줌마는 코를 바싹 대고 읽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인 걸 읽을 때 하는 방식이다.

"이제 기록부에 올라 있어요. '연극 공방. 담당: 이레네.' 공방 이름으로 서명해 줄 사람이 이제 있어요."

"이제 서명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마라 아줌마가 엘리아 아줌마 받침대 때처럼 상자에 담아 가져다주면 안 돼요?" 훌리타가 물었다.

"상자에 담아 아홉 번 가져갔지. 이제는 조건을 받는 사람이 정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접이식 미니 극장은 광장에 들고 다니려고 있는 거예요." 이레네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길에서 이걸 들 수 있는지 봐야 해요. 못 들면 저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건 서명 안 해요."

"그 말은 빵집에서 들어 본 적이 있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나는 편지를 읽은 뒤로 질문이 하나 있었고, 닳아 없어지기 전에 물어봤다.

"그런데 왜 셋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물었다. 손잡이가 둘 달린 꾸러미. 사람 둘, 손잡이마다 한 명. 손가락으로 세어 봤는데 둘이 나왔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이레네는 안경 너머로 나를 보았다. 생각보다 잘 맞는 부품을 볼 때처럼.

"좋은 질문이야. 화요일에 마당에서 너희가 답해 줘."

마라 아줌마는 책을 펴고 자기 조건을 적었다. 마라 아줌마의 조건은 늘 한 손에 들어온다. 내 손으로 세어 보니 엄지가 남았다.

- 6번: 연습용으로 빌려줌.
- 이레네나 나와 함께 나감.
- 접어서 돌아옴.
- 여기서 잠.

라벨은 상자에 그대로 두고, 상자는 마라 아줌마가 맡는다.

선반에서 자면, 해 뜰 때 돌아갈 곳이 없어. 아직 도장 아홉 개 그대로야. 내가 물어봤어.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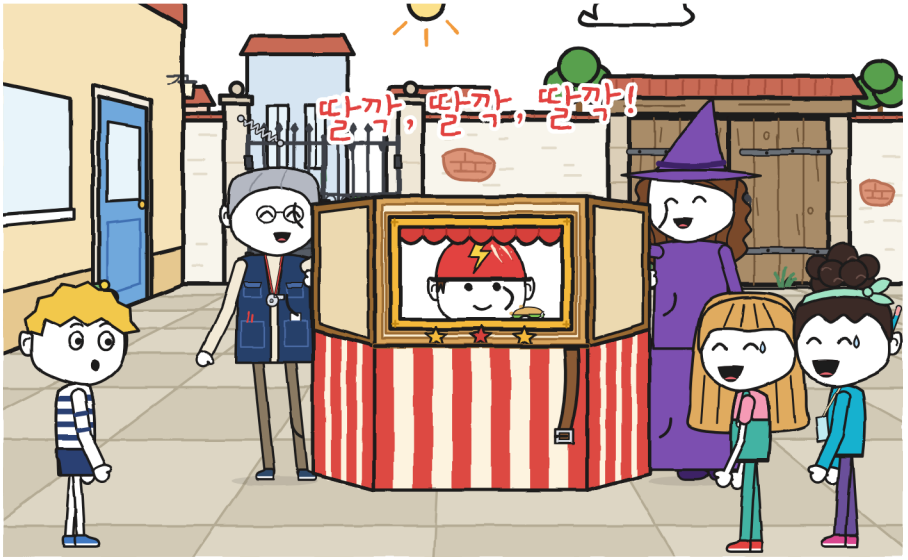
화요일에 우리는 주민센터 마당에 갔다. 인도에서 들어가는 곳에 페인트를 여러 겹 칠한 쇠 철문이 있고, 저절로 닫힌다. 놓으면 천천히 돌아와서 딸깍 소리가 난다. 시키지 않았는데 앉는 개처럼.

마라 아줌마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미니 극장은 밖으로 나오며 쑥 커졌다. 엘리아 아줌마의 받침대 때처럼. 나는 이제 놀라지 않는다. 줄자를 꺼낸다.

접은 상태는 나무판과 천으로 된 평평한 꾸러미였고, 양옆에 손잡이가 하나씩, 구멍이 셋인 버클을 지나는 벨트가 있었다. 1 m에 70 cm, 옆으로 세우면 1뼘. 철문은 문짝을 열면 90 cm. 옆으로 세우면 철문으로 들어갔다. 그건 쉬운 부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레네는 빠진 곳 없이 온전한지 보고 싶어 했다. 벨트를 풀고 꾸러미를 돌렸다. 판들이 무게 때문에 저절로 펼쳐졌다.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딸깍, 딸깍, 딸깍. 벽이 세 면인 무대, 짧은 막, 그리고 뒤쪽 판에 틀이 달린 창이 하나 있었다.

창으로 샌드위치를 들고 인도를 지나가는 토뇨가 보였다. 입에 음식이 가득해서 인사를 못 했다. 잠깐 멈춰 서서 틀에 둘러싸인 채, 헬멧을 쓰고 한쪽 볼이 다른 쪽보다 더 부풀어서, 점심시간에 그려진 중요한 사람의 초상화 같았다.



"온전하네." 이레네가 말했다. "공방 규칙이야. 손은 손잡이에. 경첩에는 절대 안 돼. 그리고 회전할 때는 누군가 벨트를 잡아."

나는 그대로 적었다.

이레네와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접고 벨트를 채웠다.

"저희가 해 볼게요." 훌리타가 말했다. 노아는 벌써 다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둘은 서로 쳐다보며 정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늘 앉던 의자로 가듯이, 각자 자기 쪽으로 갔다.

둘은 셋까지 세고 들어 올렸다. 들 수 있었다. 팔꿈치를 조금 벌린 채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미니 극장은 잘 든 쟁반처럼 흔들리지 않고 둘 사이에서 따라왔다. 철문에 도착했다. 철문은 닫혀 있었다.

훌리타가 철문을 쳐다보았다. 노아도 쳐다보았다. 손은 네 개였는데 네 개 다 차 있었다.

나는 2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어 있는 두 손과 공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저 안쪽의 이레네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와줘'도, '너'도.

나는 등으로 철문을 붙잡았다. 둘이 지나갔다. 이레네가 서류철에 뭔가를 적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이 공책의 장치를 발명했다. 내 경력에서 다섯 번째 장치이고, 떨림계, 빨강계, 여기계, 소음계 다음이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재는 첫 장치다. 이름은 셋 측정기, '구간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 구간마다 한 줄, 칸은 셋, 칸마다 작은 그림이 있다.

- 들기: 두 손으로 손잡이 둘.
- 안내: 어디로, 언제 가는지 말하기.
- 길 열기: 문, 턱, 사람.

첫 줄 '마당, 첫 번째 시도'에는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그리고 빈 칸 하나를 적었다. 둘째 줄 '마당, 두 번째 시도'도 똑같은데 셋째 칸에는 '구니'라고 적었다.

이름 두 개가 겹치고 칸 하나가 비어 있으면 통과할 수 없다. 칸이 다 차 있으면 통과한다. 이레네에게 줄 답이 생겼고, 그 답은 내 것이었다.

그리고 더 작은 것을 하나 더 적었다. '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

연필에 힘을 거의 주지 않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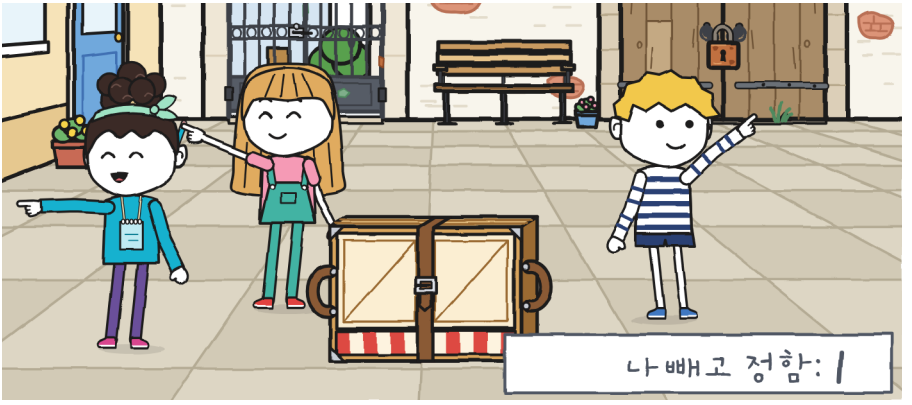
라벨을 이해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두 문은 철문의 문짝 두 개야." 훌리타가 말했다.

"둘 다 열어야 해." 노아가 말했다.

"먼저 담장 바깥쪽부터 재 볼 수도 있어." 내가 말했다.

우리 셋은 동시에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훌리타는 철문을. 노아는 공방 연습실을. 나는 길을.



“나중에.” 둘이 말했다.

둘이 동시에, 같은 가락으로 말했다. 미리 연습한 것처럼. 연습했겠지. 몇 년 동안.

나 혼자 갔다. 철문으로 나가자 뒤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다. 줄자로 구간마다 재면서 담장을 한 바퀴 돌았고, 나온 숫자는 무릎에 공책을 받치고 하나하나 적었다. 담장은 길었고, 고인 물 냄새가 나는 골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퉁이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머릿속에 그것을 담은 채 서둘러 돌아왔다. 줄자는 아직 감지 못해서 노란색 1미터가 인도에 끌렸다. 들어가 보니 훌리타와 노아는 내가 이 동네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두고 웃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로 웃었고, 노아는 그만하라며 훌리타의 팔을 건드렸지만 훌리타는 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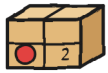
나는 입을 열었다.

“이미 정해졌어, 구니.” 훌리타가 말했다. “문짝 두 개야.”

그 쪽 아래 구석에 작게 연필로 적었다. 나 빼고 정함. 그 옆에 작대기 하나. 입이 아직 열린 채 적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공책도 덮었다.

그 작대기는 이틀 뒤에 봤어. 내 거였어. —J.



제2장

누가 길을 알까?

수요일은 첫 번째 경로를 갈 차례였다. 가게에서 마당까지, 길을 따라, 미니 극장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나는 오후 수업 내내 카드 여백에 측정기를 그리고 있었다. 새 줄을 하나 넣고 칸은 비워 둔 채, 셋이서 채우려고.

가게에 갔을 때 측정기는 이미 채워져 있었다. 초록색으로.

훌리타가 내 공책의 측정기 쪽을 펴서, 광고판 같은 글씨로 줄을 하나 더 적어 놓았다. '가게 → 마당'. 들기 칸에는 '구니와 노아'. 안내 칸에는 '훌리타'. 길 열기 칸에도 '훌리타'. 매직펜은 뚜껑이 열린 채 그 위에 있었다. 아무도 숨기려고 애쓰지 않은 증거처럼.

"너랑 노아는 들어." 훌리타가 말했다. "나는 안내할게. 길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앞에서 가니까 길도 열고."

"오면서 같이 생각했어." 노아가 말했다.

이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주소를 알려 주듯이, 사실이니까 한 말이었다. 둘은 어딘가에서 같이 왔고 오는 길에 생각을 했다. 나는 내

길에서 같은 생각을 했지만 카드 여백에서였고, 그건 '같이 왔다'에 안 들어간다.

초록색은 지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 작대기.



"나가기 전에 약도를 그릴 수도 있잖아." 내가 말했다. "회전마다 번호를 붙여서."

머릿속에는 반쯤 그려져 있었다. 가게 문, 턱, 신발 가게, 작은 광장, 기차역처럼 동그라미 안에 번호를 넣은 회전들.

"약도는 필요 없어." 훌리타가 말했다. "절뚝이 물고기까지 쭉 직진이야."

노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훌리타도 그랬다. 작은 웃음이 아니었다. 한 명에게서 시작해서 첫 번째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한 명에게 옮아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웃음.

"무슨 물고기?"

"절뚝이 물고기는 절뚝이 물고기야." 노아가 아직 몸을 반으로 접은 채 말했다.

"긴 이야기야." 훌리타가 말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이야기고." 노아가 말했다.

나는 기다렸다. 연필을 허공에 들고, 길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이야기를 적을 준비를 하고. 둘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천천히

진정되면서 소매로 눈을 닦았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볼 때마다 딸꾹질처럼 조금씩 다시 올라왔다.

나는 연필을 내렸다. 세 번째 작대기.



마라 아줌마는 가게 문 앞 인도에서 미니 극장을 상자 밖으로 꺼냈고, 상자는 라벨과 아홉 개의 도장과 함께 안에 남았다. 노아가 벨트를 첫 번째 구멍에 채웠다.

"그래야 도착했을 때 더 빨리 풀려."

좋은 이유였다. 나는 적었다. '구멍 1: 더 빨리 풀림'. 나머지는 적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직 몰랐으니까.

나는 앞에, 노아는 뒤에서, 둘 다 한 손은 손잡이에 대고 걸었다. 앞에서는 길이 보인다. 뒤에서는 미니 극장밖에 안 보인다. 코앞 한 뼘 앞에 있는 1미터의 나무와 그림 그린 천은 옷장 뒤를 걷는 것 같다. 노아는 다른 손을 벨트 가까이에 두고 있었다. 버릇이거나 이레네의 규칙 때문이겠지. 그리고 작은 소리로 세고 있었다. 걸음을 세고 있었다. 앞에서도 들렸다. "...스물하나, 스물둘..." 다른 사람들이 흥얼거릴 때 쓰는 것과 같은 가락으로.

이레네는 서류철과 호루라기를 들고 맨 끝에서 따라왔다. 어디로 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턱이 있으면 "멈춰"라고 했다. 딱 한 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멈췄고, 길 전체가 우리와 같이 멈춘 것 같았다.

훌리타는 길을 아주 잘 열었다. 몇 걸음 앞에서 뒷걸음질하며 트럭 주차시키는 사람처럼 팔을 휘저었다.

"길 좀 열어 주세요, 극장 지나갑니다!"

신발 가게 아줌마가 한 짝을 반쯤 묶다 만 채 손에 들고 문으로 나와서 구경했다. 개를 데리고 있던 아저씨는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개도 기다렸다. 그게 더 어렵다. 멀리, 동네 저쪽에서 작은 종이 울렸다. 딸랑.

"번개배송이 시험 연습 중이야." 노아가 말했다. "자전거 타고 봉투 하나 들고. 우리는 걸어서, 이걸 들고."

"이걸 들고는 뛰는 거 아니야." 이레네가 말했다.

토뇨가 월요일에 말해 줬다. 번개배송은 지점마다 셋이 같이 도착해야 하고, 아니면 무효라고. 그때는 뭐에 쓸지 모르고 적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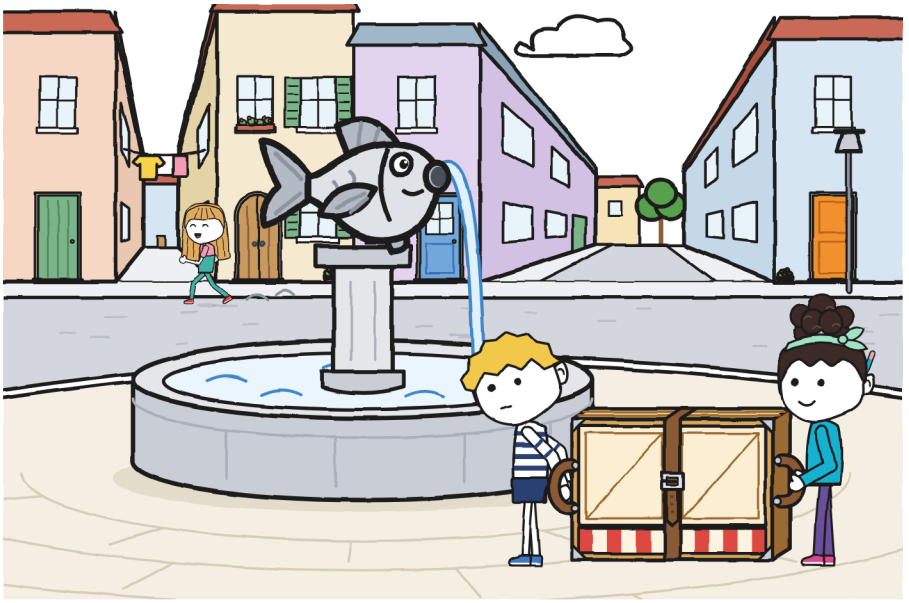


우리는 분수 있는 작은 광장에 도착했다. 둥근 광장이고, 둘레에 벤치가 있고, 누가 와도 비키지 않는 비둘기들이 있다. 훌리타는 뒤돌아서서 안내를 외치고, 철문을 잡고 있으려고 광장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절뚝이 물고기까지 쭉 가서 꺾어!"

그러고는 사라졌다. 사람 두 명 사이로 멜빵바지가 잠깐 보이더니 그걸로 끝이었다.

분수 한가운데에는 짧은 기둥 위에 돌 물고기가 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생각을 바꾼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나는 자세히 보았다. 내 쪽에서는 지느러미가 다 있었다.



나는 빨리 생각했다. 그건 내 방식이 아니다. 내 방식은 자를 대고 천천히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미니 극장은 무거웠고, 노아는 뒤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고, 길은 우리 둘레에서 계속 걷고 있었다. 나는 공책을 손잡이에 기대고 두 줄을 적었다.

1. 분수의 물고기: 지느러미 다 있음. 절뚝이 아님. 다른 물고기가 있을 것.
2. 꺾기: 어느 쪽? 왼쪽은 좁은 길. 오른쪽은 넓은 길. 미니 극장은 넓은 쪽이 더 좋다.

그 밑에 오른쪽을 가리키는 굵은 화살표. 흠잡을 데 없는 추론이었다. 틀린 건 시작뿐이었다.

"벌써 꺾을까?" 뒤쪽으로 물었다.

"절뚝이 물고기에서!" 노아가 미니 극장 뒤에서 말했다.

노아에게는 나무밖에 안 보였다. 거기서 절뚝이 물고기는 단어였고, 그 단어는 제대로 말한 것이었다.

나는 다른 물고기를 계속 찾았다. 현관들, 간판들, 알고 보니 철물점이던 생선 가게를 봤다. 없었다. 나는 오른쪽으로 꺾었다.



아무도 "회전"이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벨트를 잡지 않았다. 첫 번째 구멍에서는 버클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딸깍. 딸깍. 딸깍.

판들이 천천히 하나씩, 노아 둘레로 펼쳐졌다. 누군가 안쪽에서 열어젖히는 아티초크 잎처럼. 이레네가 호루라기를 불었다. 소리가 그치자 길 한복판에 극장이 있었다. 그리고 극장 안에는 노아.

"안녕." 노아가 창으로 말했다.

노아는 들은 대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경첩에서 멀리 떼고 있었다. 벨트는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다. 나는 아직 손잡이를 쥐고 있었지만, 그건 이제 아무것의 손잡이도 아니었다. 무대의 가장자리였다.



이레네는 노아의 손을 보았다. 그다음 내 손을. 정말로, 손가락 하나하나, 양쪽 다 보았다. 다 온전했다. 판은 가볍고 천천히 열리니까.

"누가 안내했지?" 이레네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안내하던 사람은 두 골목 너머에서 철문을 잡고 있었다.

우리는 이레네와 내가 접었다. 손은 옆 막대에 대고, 서두르지 않고, 판마다 하나씩. 밖으로 나온 노아가 벨트를 채웠고, 이번에는 두 번 당겼다. 그동안 나는 쟀다. 내 발에서 분수까지, 4미터. 줄자를 아직 바닥에 쭉 편 채, 내 신발에서 돌 가장자리까지 적었다.

훌리타가 뛰어 돌아왔다.

"절뚝이 물고기에서였잖아!"

"무슨 절뚝이 물고기?"

"저거!" 훌리타가 분수를 가리켰다. "왼쪽. 늘 하던 대로."

"'늘'은 내가 없던 때 얘기야."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었다. 날짜를 바로잡듯이 한 말이었다. 훌리타는 분수를 가리킨 팔을 1초 더 뻗고 있다가, 서류철을 펼친 이레네 쪽으로 돌아섰다.

"구니가 길을 잃었어요."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았다. 분수에서 4미터. 방금 재 봤으니까.

노아는 닫은 수첩을 스웨터에 붙인 채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이레네는 뭔가를 적었다. 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도 나 빼고 정했다. 네 번째 작대기.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 알아. —J.



둘이 나에게 물고기의 반대쪽을 보여 주었다. 우리 셋은 분수를 한 바퀴 돌았다. 접은 미니 극장은 노아와 나 사이에 있었고, 이레네는 뒤에서 따라왔다. 지느러미가 하나 없다. 왼쪽 것이다. 가게 쪽 길에서 오면 보이지 않는다. 사진 찍는 사람처럼 물고기는 좋은 쪽만 보여 준다. 보려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나는 양쪽을 나란히 그렸다. 같은 물고기, 물고기 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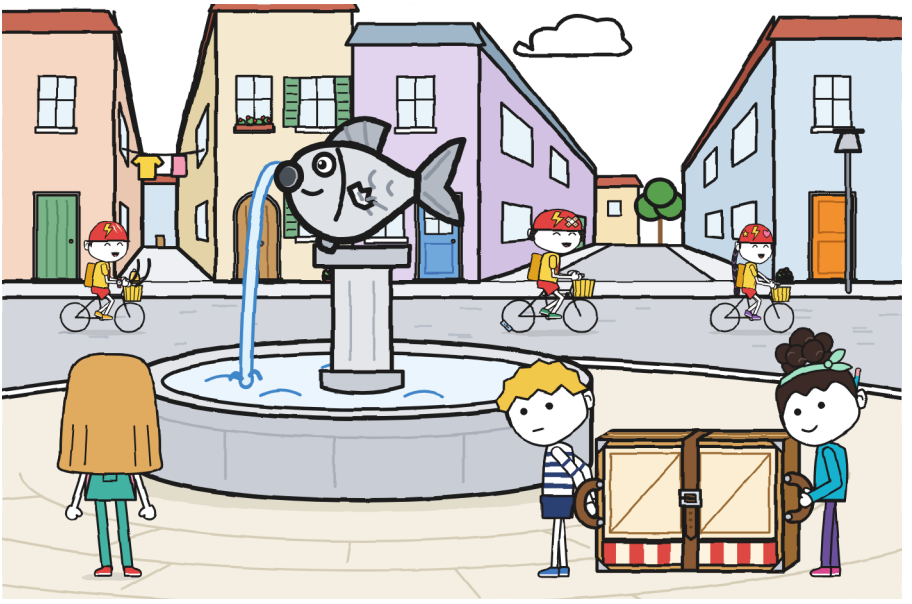
우리는 회전을 다시 했다. 몇 미터 되돌아가서 길 입구에서 한 번 더, 이번에는 훌리타가 내 옆에 있었다. 첫 번째에는 "회전"을 너무 일찍 말해서, 노아가 어느 현관 앞에서 괜히 벨트를 잡았다. 두 번째에는 너무 늦었다. 미니 극장 절반이 이미 커브에 들어갔고 노아가 손으로 더듬어 벨트를 찾았다. 세 번째에는 됐다. 잘 됐고, 딸깍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늘 말하는 훌리타조차도.

그때 번개배송이 차도로 지나갔다. 소에, 브루노, 토뇨가 한 줄로, 손은 핸들에. 모퉁이에서 딸랑. 앞에는 땋은 머리가 바람에 날리는 소에, 가운데에는 바구니에 봉투를 담은 브루노, 맨 뒤에는 손가락 하나를 종에 얹은 토뇨. 셋은 서지도 않고 서로 닿지도 않고, 내내 같은 간격으로 분수를 돌았다. 영원히 서로 따라잡지 못하는 시곗바늘처럼.

"첫 번째 지점, 한 번에 통과." 토뇨가 지나가며 말했다.

우리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 토뇨는 듣는 사람이 없어도 기록을 큰 소리로 알린다. 그게 번개배송다운 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들었다.

훌리타는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훌리타의 팔은 늘어져 있는 법이 없다. 가고, 오고, 가리키고, 길을 연다. 그날 오후 종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팔은 양옆에서 미니 극장 없는 손잡이 두 개처럼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거의 밤에 마당에 도착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안내할 필요가 없었다. 철문이 보였으니까. 훌리타는 철문을 손으로 잡고 "길 열어요!" 하고 외치지 않았다. 마라 아줌마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니 극장을 상자에 넣어 가게로 가져가서 자기 선반에서 재웠다.

오늘 일을 측정기에 적었다. 초록색 줄 밑에, 연필로 좁은 새 열을 하나 더 넣었다. '펼쳐짐 · 3번 반복'. 세 칸에 다 이름이 있었는데도 길에서 극장이 펼쳐졌다. 측정기에 뭔가가 빠져 있었다. 뭔지는 몰랐다. 옆에 큰 물음표를 그렸다. 질문이 동네의 것이 아니라 기계의 것일 때 쓰는 크기로.

그 줄에 내 이름이 두 번 나와. 나는 둘 다 없었어. —J.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스탠드를 켜고 책상에 앉아 공책 맨 마지막 쪽을 폈다.

거기에 화요일에 담장 뒤에서 발견한 것을 그렸다. 조심스럽게, 자를 대고, 무릎에 공책을 받치고 적은 미터 수로. 아주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와서 연필을 멈추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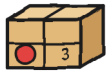
엄마가 잘 자라고 말하려고 문틈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때 나는 이미 손을 그림 위에 얹고 있었다. 엄마는 인사를 했고, 내 손을 보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닫았다.

혼자인데도 손으로 가렸다. 한쪽으로 담장 조각과 자물쇠 반쪽이 삐져나와 있었다.

생각했다. '내일 또 틀릴 거야. 그때 꺼내자.'

좋은 계획 같았다.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다.

이 쪽은 목요일에 읽었어. 마음에 안 들었어. 수요일의 내 쪽도. —J.



제3장

구니의 약도는 쓸모 있을까?

그날 밤, 손이 가리느라 지쳤을 때 약도를 통째로 만들었다.

비둘기들이 보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본 마당. 화요일에 무릎 위에서 적어 둔 숫자로 구간마다 잰 담장. 저절로 닫히는 화살표가 달린 철문. 아무도 다시 속지 않도록 나쁜 쪽에서 그린 물고기가 있는 분수. 한구석에 작게 그린 가게. 동그라미 안에 번호를 넣은 세 구간. 그리고 담장 뒤에서 화요일에 본 것.

아주 좋은 약도가 나왔다. 내가 만든 것 중 가장 좋은 축에 들었다. 많이 만들어 봤다. 연필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게 스탠드를 기울이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네 겹으로 접어 손톱으로 접힌 선을 눌러 공책 안, 아무 상관없는 두 쪽 사이에 끼워 넣었다.



목요일, 가게에서 노아가 세고 있었다.

노아는 진열창 앞 인도에서 길고 똑같은 걸음으로 턱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발은 안 보고, 가는 쪽을 보며 입술을 움직이면서.

"문에서 턱까지 여섯 걸음. 턱에서 가로등까지 열한 걸음."

"그건 줄자로 재는 거야." 내가 말했다.

"난 걸음으로 재. 늘 신고 다니거든."

생각해 보았다. 맞는 말이었다. 줄자는 꺼내서 펴고 발로 눌러야 하고, 그러고는 혼자 감겨서 손가락을 문다. 걸음은 집에 두고 올 일이 없다.

"네 한 걸음은 얼마야?"

"한 걸음."

나는 노아의 한 걸음을 재 보았다. 가게 바닥에 줄자를 펴자, 노아는 서명하듯 생각도 없이 자기 방식대로 긴 걸음을 한 번 내디뎠다. 나는 몸을 숙여 눈금을 읽었다. 58센티미터. 노아는 수첩에 적었다. 나는 공책에. 두 글씨가 같은 말을 했다. '노아의 1걸음 = 58 cm'.

"네 건?" 노아가 물었다.

몰랐다. 재 봤다. 줄자 위에서 학교 갈 때처럼 보통 걸음을 한 번 걸었고, 노아가 몸을 숙여 읽었다. 위에서는 발을 움직이지 않고는 안 보이니까. 51센티미터. 노아는 그것도 적었다. 나는 평생 걸음을 신고 다녔지만 한 번도 세어 보지 않았다.

훌리타는 계산대에서 팔짱을 끼고 눈썹 하나를 올린 채 우리를 보았다. 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시계 두 개를 보는 사람처럼.

나는 노아가 또 하나의 훌리타일 줄 알았다. 아니다. 노아는 센다.

우리는 이레네와 함께 마당에 갔다. 훌리타와 노아는 자기들 생각을 해 보고 싶어 했다. 철문의 문짝 두 개를 다 여는 것.

첫 번째 문짝은 저절로 열리고 닫혔다. 우리가 아는 문이었다. 두 번째는 열리지 않았다. 둘이 같이 당겼다. 각자 두 손으로, 발은 바닥에 박고, 훌리타는 얼굴이 빨개지고 노아는 큰 소리로 셋까지 세었는데, 셋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레네가 몸을 숙여 살폈다. 페인트 위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바닥에는 손가락만큼 굵은 나사가 문을 박고 있었다.

"그럼 라벨이 틀렸어." 훌리타가 말했다.

"분명해." 노아가 말했다.

둘은 2초 만에 정했다. 나는 세어 보았다. 나는 작대기를 그으려고 연필을 꺼냈다. 다섯 번째였다.

긋지 않았다.

연필은 종이에서 손가락 하나 높이에 머물렀다. 쪽 구석의 작대기 줄을 보았다. 네 개, 잘 그려진, 곧은, 크기가 다 같은. 정성껏 그어 둔 것들이었다. 그리고 하나가 모자랐다.

화요일, 담장 뒤에서 나도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하나를 정했다. 입을 다물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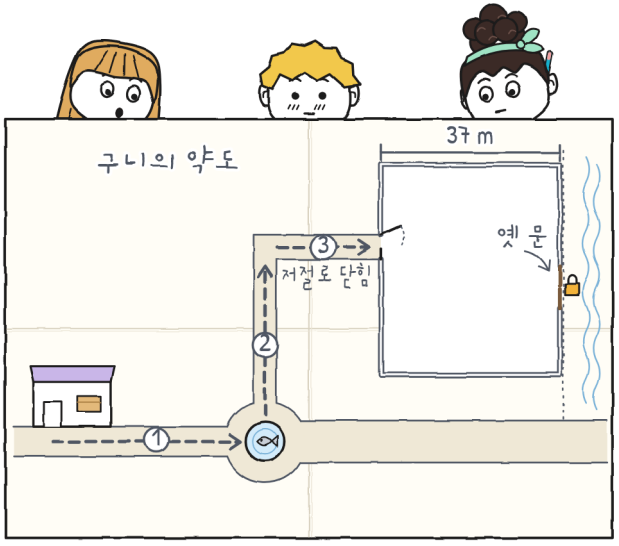
'나 빼고 정함' 밑에 같은 글씨로 연필로 줄을 하나 더 적었다. 둘 빼고 정함. 그리고 작대기 하나. 다른 것들보다 더 삐뚤게 나왔다.

"라벨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나왔다. "마당에는 다른 문이 있어. 뒤쪽, 운하 골목에. 낡았고 자물쇠가 달려 있어. 화요일에 찾았어."

나는 두 쪽 사이에서 약도를 꺼내 바닥에 놓인, 책상 노릇을 하는 접힌 미니 극장 위에 펼쳤다. 접은 선이 약도를 창문처럼 열십자로 네 조각 냈다.

"화요일?" 훌리타가 말했다.

"화요일. 나중에 옳았다고 하려고 숨겨 뒀어."



세 머리가 종이 위로 숙여졌다. 담장: 37미터. 한쪽에는 '저절로 닫힘'이라고 쓴 철문. 반대쪽에는 자물쇠가 정면으로 그려진, 잘 보이도록 그린 두 문짝 문. 옛 문.

한참 아무도 말이 없었다. 재 보았는데 길었다. 담장 건너편에서 체스 소리가 들렸다. 판 위에 말 하나 놓이는 소리, 가끔씩, 서두르지 않는 시계처럼.

"알겠어." 노아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기 지도에 문을 베꼈다.

청록색 연필로 조심스럽게, 내 약도의 칸을 연필심으로 세어서 제자리에 그렸다. 더 묻지 않았다. 노아에게 있는 문은 적어 두는 문이다.

훌리타는 "알겠어"라고 하지 않았다. 발을 움직였다. 빨간 신발이 마당 바닥 위를 왔다 갔다 했다. 딱, 딱, 딱, 내가 아는 박자로. 곧바로 말하지 않을 일의 박자.

"어제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게."

어제, 약도가 공책에 있었는데, 노아가 극장 안에 있는 동안 나는 내 발에서 분수까지 4미터를 쟀다.

마당에는 구석이 없다. 찾지도 않았다. 서 있던 자리에서 약도를 펼치고 양손을 올려 두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알겠어라고 못 했어. 아직은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J.

우리 셋은 이레네와 함께 그걸 보러 갔다. 철문으로 나왔고, 뒤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닫혔고, 담장을 한 바퀴 돌았다. 노아는 입술로 작게 셌다. 예순네 걸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37미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예순네에 58을 곱하면 37 조금 넘게 나왔다. 같았다.

내가 말하자 노아가 나를 보았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자기 걸음 옆에 '37 m'를 적었고, 나는 내 미터 옆에 '64걸음'을 적었다.

운하 골목은 좁고 고인 물 냄새가 난다. 맨 끝에 난간이 보이고, 그 뒤로 운하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간다. 옛 문은 나무로 된 두 문짝이고, 거인의 침대만큼 넓다. 노아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쟀다. 세 걸음. 나는 쟀다. 1미터 75센티미터. 철문 거의 두 개. 나무는 비를 하도 맞아 회색이다. 자물쇠는 자물쇠보다 녹이 더 많다.

훌리타는 손가락 끝으로만 만졌다. 물지도 모르는 걸 만지듯이.

"몇 년째 닫혀 있어." 이레네가 말했다. "난 늘 이 모습만 봤어."

이레네는 서류철에 든 주민센터 기록부를 침 바른 엄지로 한 장씩 넘기며 찾았고, 노란 종이 한 장에 이르렀다.

"여기 있다. 이 문을 쓰던 때에는 마당에 들어가는 길이 두 군데였어. 철문이나 여기나. 그걸 '두 문'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모든 모임 중에서 연극만 마당에서 연습해."

종이에는 두 문이 그려진 마당의 오래된 약도가 잉크로 그려져 있었고, 글씨가 있었다. 두 문 마당. 내 것과 비슷했다. 더 낡았고 덜 정확했지만 비슷했다. 문을 세어 봤다. 둘. 내 것도 둘. 다른 사람의 약도가 내가 옳다고 해 준 건 처음이었다. 이 동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기 한참 전에 누군가 그린 것이.

"그럼 라벨은 수수께끼가 아니었네." 노아가 말했다.

"주소야." 내가 말했다.

'마당 공방. 두 문으로 입장.' 제대로 쓰인 글이었다. 낡았을 뿐이었다.

마라 아줌마는 나중에 자물쇠를 아홉 번 봤다고 했어. 닫힌 문은 이제 안 쳐도 되는 줄 알았대.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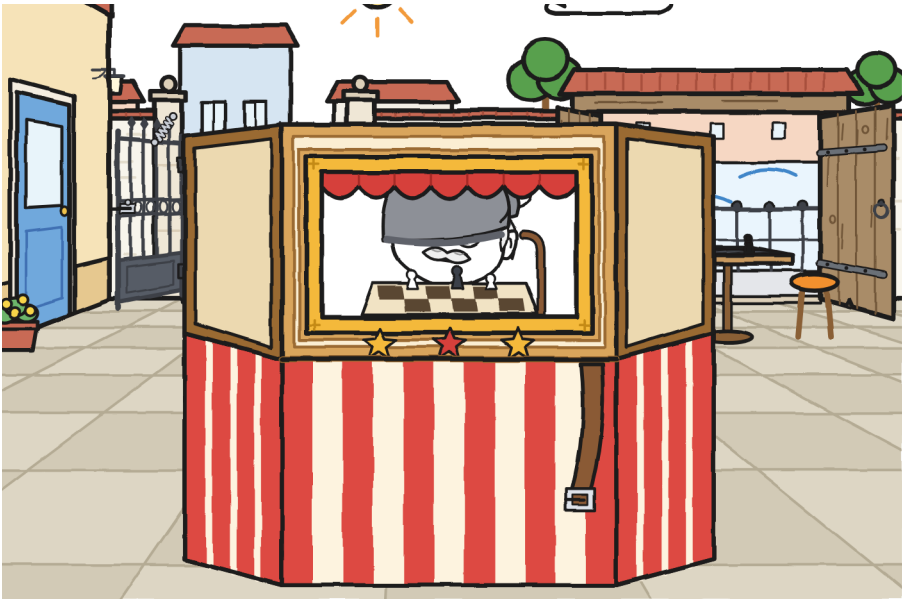
열쇠는 서류철 안, 봉투에 있었다. '옛 문. 잃어버리지 말 것.' 이레네는 두 손가락으로 꺼내서 오랫동안 못 본 사람을 보듯 쳐다보더니 자물쇠를 열었다. 힘들었다. 처음에는 돌지 않았고, 그다음에는 갑자기 돌았다. 문은 배 같은 소리를 냈다.

안쪽 마당에서는 체스 하는 사람들이 탁자를 해로 내놓았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몇 년째 닫혀 있던 문이 바로 옆에서 배 같은 소리를 내며 열리는데 체스 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것도 일종의 겨루는 방식이다.

이레네는 두 문 사이에 자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려고 가운데에 미니 극장을 펼쳤다. 노아와 함께, 둘 다 옆 막대에 손을 대고 펼쳤다. 딸깍, 딸깍, 딸깍. 자리는 충분히 남았다.

미니 극장의 창으로 안토니오 어르신이 보였다. 베레모를 눈 위에 눌러쓰고, 지팡이를 무릎 사이에 끼고, 판 앞에 앉아 있었다. 수를 생각하는 중이었다. 조금 코를 골았다. 틀 안에 있는 모습을 한참 쳐다보았다. 그림이 바뀔까 봐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토요일에 둘 다 열 거야." 이레네가 말했다. "자전거는 운하 골목에서 옛 문으로 들어와. 걸어서 들고 오는 사람은 인도에서 철문으로. 그러면 안 부딪혀."



"그런데 옛 문이 더 넓어요." 훌리타가 말했다. "그리고 저절로 안 닫히고요."

"그리고 철문은 너희 거야. 공방이 광장으로 미니 극장을 옮기게 되면 더 나쁜 문도 있을 거야."

훌리타는 입을 열었다. 말을 준비한 채 잠깐 열어 두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노아를 보았다. 나를 보았다.

"넌 어떻게 생각해?"

그 주 내내 처음이었다. 날짜를 붙여 적었다. '목요일 29일. 넌 어떻게 생각해?' 대답하기 전에 적었다. 답을 생각하는 동안 질문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철문이 좋다고 했다. 연습한 다음에. 노아도 같은 말을 했다. 훌리타는 알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반쯤은 진짜였다. 전보다 반만큼 더.



그다음에는 측정기를 고쳤다. 접어 둔 미니 극장 위에 놓았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미 늘 쓰는 책상이었다. 칸은 셋이었고, 어제 일에도 내일에도 맞는 칸은 없었다.

새 칸은 셋이 같이 그렸다. 나는 연필로 네모를 그렸다. 훌리타는 초록색으로 이름을 적었다. 노아는 청록색으로 작은 그림을 그렸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같은 줄이 그어진 입.

- 알림: 자기가 아는 걸 말하기.

수요일 줄의 새 칸에 훌리타가 '아무도'라고 적었다. 화요일 줄에는 내가 적었다. '구니, 아님'. 천천히, 늘 쓰는 글씨로, 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었고, 지우지 않았다.

셋 측정기에는 칸이 넷이야. 불평하는 건 아니야. 넷째 칸이 제일 어려워. —J.

우리는 분수를 지나 돌아왔다. 저녁이었고, 물이 공책 색깔이 되어 있었다. 나는 물고기 앞에 멈췄다. 절뚝이 쪽에서. 수요일처럼 지느러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볼 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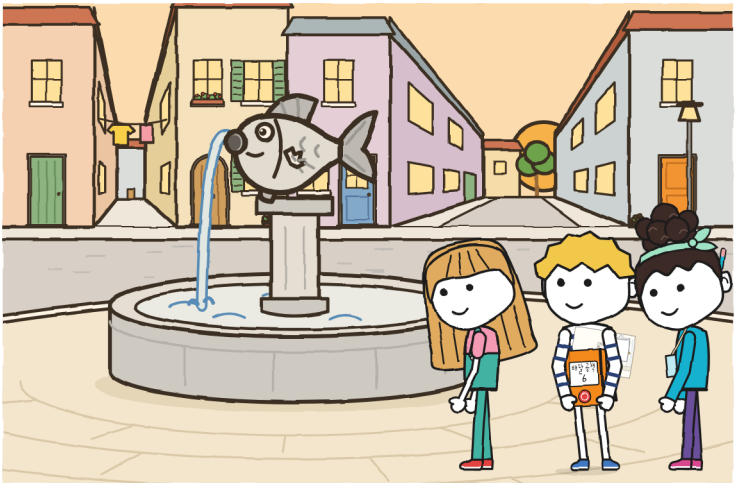
"그 이야기 해 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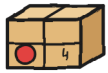
훌리타와 노아가 서로를 보았다. 웃지는 않았다. 수요일 웃음의 한 귀퉁이가 비쳤고, 각자 자기 몫을 도로 넣어 두었다.

"길어." 훌리타가 말했다.

"토요일에." 노아가 말했다. "도착하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었다. 나는 약도를 공책에 넣었다. 이번에는 접지 않고, 약도가 반쯤 삐져나오게.





제4장

아무나 안내할 수 있을까?

금요일, 토뇨가 시계와 연필과, 집게로 판에 고정한 번개배송 참가 신청서를 들고 가게에 왔다. 아직 따지 못한 트로피를 올려놓듯, 우리가 볼 수 있게 계산대에 놓았다.

동네 대회 · 31일 토요일. 팀: 번개배송. 그 밑에 번호가 매겨진 이름 셋. 소에, 토뇨, 브루노. 전부 같은 뾰족한 글씨였고, 토뇨의 글씨가 아니었다. 지워진 이름은 없었다.

"소에가 쓴 거야." 토뇨가 말했다. "브루노가 불러 줬어. '브루노, 브 자로.'"

"그럼 소에는?"

"브루노라고 썼어. 브 자로."

확인해 보았다. 브 자는 있었고, 아주 단단했다. 누가 연필을 쳐다보고 있을 때 쓰는 그런 글자였다.

그러고는 '아직은' 상자에 앉아 시계를 0으로 돌렸다. 가게 전체에 들릴 만큼 딸깍 소리가 났다.

"오늘은 시간을 재. 의견은 없어. 다시 해야 한 것만 적어."

토뇨는 번개배송이고 가게 사람이기도 한데, 그날 오후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판에는 자기 팀 신청서, 손목에는 우리 시간.



생각이 셋이었다. 머리마다 하나씩. 노아는 교대. 구간 셋에 구간마다 안내하는 사람이 다르게. 내 생각은 안내와 길 열기를 같은 사람이 하는 것, 자유로운 사람이. 드는 둘은 미니 극장밖에 안 보이니까. 수요일에 내가 그중 하나였고, 제일 많이 본 건 그림 그린 천이었다. 훌리타의 생각은 지금 시작하자.

나는 그 전에 약도로 길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걸으면서 봐." 훌리타가 말했다.

훌리타가 이겼다. 걸으면 길은 아주 빨리 보인다.

"첫 번째는 누가 안내해?" 노아가 물었다.

우리 셋은 동시에 가리켰다. 화요일에도 그랬고, 그때는 각자 다른 곳을 가리켰다. 철문, 연습실, 길. 이번에는 아무도 장소를 가리키지 않았다. 나는 노아를, 노아는 훌리타를, 훌리타는 나를 가리켰다. 돌지 않으려는 바퀴살처럼 둥글게 뻗은 팔 셋, 그 가운데 바닥에는 접어 둔 미니 극장. 아무도 자기를 가리키지 않았다.

토뇨는 고개도 들지 않고 적었다. 이레네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고 문가에서 기다렸고, 역시 의견이 없었다. 그날 오후 가게에는 의견 없는

사람이 둘이었고, 셋째로 마라 아줌마가 있었다. 마라 아줌마는 큰 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계획은 원을 한 바퀴 돌아 나왔다.

1. 가게 → 분수: 훌리타가 안내.
2. 분수 → 모퉁이: 구니가 안내.
3. 모퉁이 → 마당: 노아가 안내.



미니 극장을 들기 전에 훌리타가 말했다.

"한 가지."

예고도 없었다. 훌리타는 내 앞에 섰다. 미니 극장 앞도, 노아 앞도, 문 앞도 아니고 내 앞에. 팔이 달아나지 못하게 묶어 놓은 것처럼 몸에 붙이고.

"수요일에 나는 노아만 알아듣는 안내를 했고, 그러고는 네가 길을 잃었다고 했어."

그게 전부였다.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일어난 일, 누가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 내가 같은 말을 하려면 한 쪽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래에 별표 주석도 달았을 것이다.

훌리타의 발을 보았다. 훌리타의 발은 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말할 때는 둘 중 하나가 벌써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는 둘 다 가만히, 나란히, 브레이크를 걸고 주차해 놓은 듯 타일 위에 서 있었다. 내 뒤에서 노아는 벌써 자기 손잡이에 손을 얹고, 방해하지 않으려고 바닥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있었다. 토뇨는 연필을 종이에서 1센티미터 위에 멈춰 두고 있었다.

"알겠어." 내가 말했다.

목요일에 노아에게 배웠다. 온전하게 나왔다.

나는 질문 하나 없이 뭔가를 받아들일 줄 몰라서 질문을 하나 했다.

"물고기는 어느 쪽 지느러미가 없어?"

"왼쪽. 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훌리타가 생각도 없이, 답을 외워 온 사람처럼 답했다. "분수에서 좌회전. 다섯 걸음 전에 알려 줄게."

"그건 안내네."

쪽, 자리, 알림이 있었다. '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까지 그대로 공책에 옮겼다. 그게 수요일에 모자랐던 바로 그것이었다.



두 발이 가만히 있어. 그림에서 확인해 봐. —J.



첫 번째 구간. 노아가 벨트를 두 번째 구멍에 채웠다. 나는 세 번째가 더 잘 버틴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풀리는 데 오래 걸려." 노아가 말했다. "도착하면 급하잖아."

나는 한 번, 큰 소리로 말했고, 졌다. 손잡이는 같은 무게였다.

출발했다. 이레네는 열 걸음 뒤에서 서류철을 들고 맨 끝에. 토뇨는 차도로,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눈은 손목에 두고. 훌리타는 세 걸음 앞에서 갔고, 작은 광장 입구에서 왼쪽으로 팔을 들었다.

"다섯 걸음... 좌회전!"

"벨트!" 노아가 말하고 벨트를 잡았다.

우리는 늘 해 왔던 것처럼 절뚝이 물고기 둘레를 돌았다. 내 쪽에서는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아직 다 있었다. 이제 물고기를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딸깍 소리는 없었다.

"첫 번째 구간: 6분." 토뇨가 말했다. "다시 함: 없음."



분수에서 바꿨다. 훌리타와 노아가 손잡이를, 나는 자유롭게. 연필 말고 다른 걸 안내하는 건 내 평생 처음이었다.

준비해 뒀다. 전날 밤 스탠드 아래에서 약도에 좁은 길을 재 두었다. 턱 둘, 튀어나온 현관 하나, 덜컹거리는 맨홀 뚜껑 하나, 횡단보도 하나. 짧은 길, 둘이 가려던 길은 선이 없는 곳을 비스듬히 건넌다. 내 길은 턱을 내려가서 선을 따라 건너고 다시 올라온다. 아홉 걸음 더 길고 다른 길에는 없는 '멈춰'가 둘 있다. 전부 번호를 붙여 두었다. 하지만 약도에는 아주머니가 없다.

나는 이렇게 안내한다.

"세 걸음. 멈춰. 턱. 올라. 두 걸음. 멈춰.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장바구니 카트를 끌고 앞에서 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인사를 받아 주었다. 나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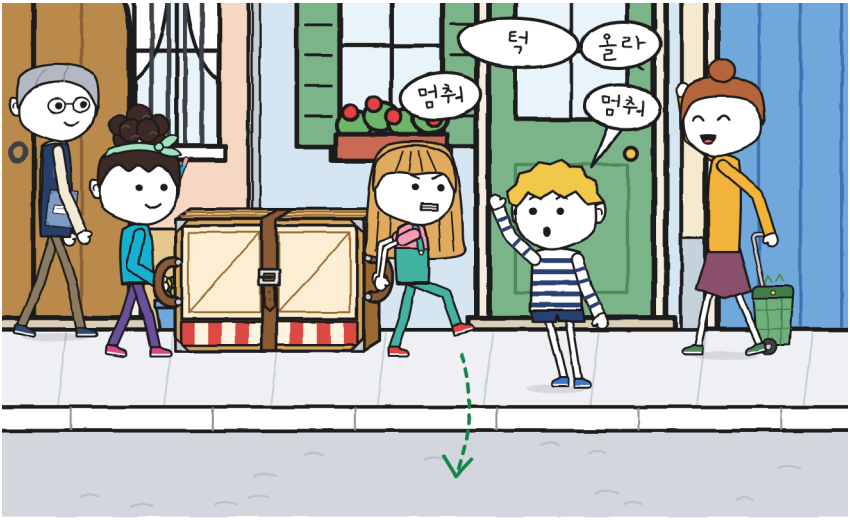
"아주머니 지나가세요. 네 걸음."

게나 교통 안내원처럼 옆걸음으로 걸었고, 손은 한 손 들고 있었다. 교통 안내원에게는 든 손 하나뿐이지만 버스도 그 말을 듣는다. '멈춰'는 수요일에 이레네에게서 들었다. 이레네는 어디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턱이 있으면 '멈춰'라고 한다. 그때는 너무 적어 보였다. 안내하는 자리에서 보면 아주 많다. 두 사람과 극장 하나와, 필요하면 아주머니까지 동시에 세우는 단 하나의 말이다.

"멈춰. 뚜껑. 가장자리로 밟아, 가운데 말고. 두 걸음."

훌리타는 손잡이를 들고 아무 소리 없이 앞에서 갔다. 훌리타에게는 그게 뉴스다. 발이 저절로 짧은 길 쪽으로 나갔다. 아는 집 초인종으로

손이 나가듯 비스듬히 나가서 잠깐 허공에 머물렀다가 내 선으로 돌아왔다. 내 쪽으로 돌려놓았다. 네 번 하는 걸 보았다. 네 번째에는 입술을 앙다물었고 모퉁이까지 풀지 않았다.



뒤에서 노아는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걸음을 센다고 생각했다. 차도에서 토뇨는 시계를 보고, 나를 보고, 다시 시계를 봤다. 의견이 안 맞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사람처럼.

"멈춰. 모퉁이."

도착했다. 아무도 뒤로 물러서야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구간: 11분." 토뇨가 말했다. "내가 재 본 중에 제일 느려. 다시 함: 없음."

11분은 많은 분이다. 상관없었다. 분은 토뇨가 적었고, 다른 건 내가 적었다. 작은 글씨로, 닳지 않게. 내가 뭔가를 안내했고 다시 할 필요가 없었던 건 처음이었다.

"'멈춰'를 열네 번 했어." 훌리타가 말했다.

"내가 세어 봤는데." 노아가 말했다. "열다섯 번이야."

그러니까 걸음을 세는 게 아니었다.

"여섯 개는 필요 없었어." 훌리타가 말했다. "그래도 다 했어."

"하나도 필요 없는 건 없었어." 내가 말했다.

"여섯 개."

토뇨는 누가 옳은지 적지 않았다. 숫자를 적었다. '"멈춰": 15 (노아가 셈)'. 훌리타는 매직펜 뚜껑을 열고 옆에 초록색으로, 번개배송 헬멧을 쓴 달팽이를 그렸다. 토뇨는 한참 쳐다보았다. 지우지 않았다. 토뇨의 종이에서는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다.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 이를 하도 악물어서 이가 아팠어. —J.



세 번째 구간, 모퉁이에서 마당까지. 훌리타와 내가 들었고, 노아가 안내했다. 이레네가 모든 팀에 나눠 준 대회 지도를 들고.

스무 걸음쯤 가서 운하 골목이 시작되는 곳에서 멈췄다.

"안 나와."

"뭐가 안 나와?"

"지도가 여기로 넣어. 옛 문까지. 그런데 우린 철문으로 들어가잖아. 반대쪽이야."

훌리타가 그걸 보려고 돌아서기 시작했다. 돌아서는 뒤로 미니 극장이 통째로 따라오고 벨트는 아무도 잡고 있지 않았다.

"바닥에." 내가 말했다.

"잠깐만 보고 계속 가자."

"먼저 내려놓아. 그다음에 따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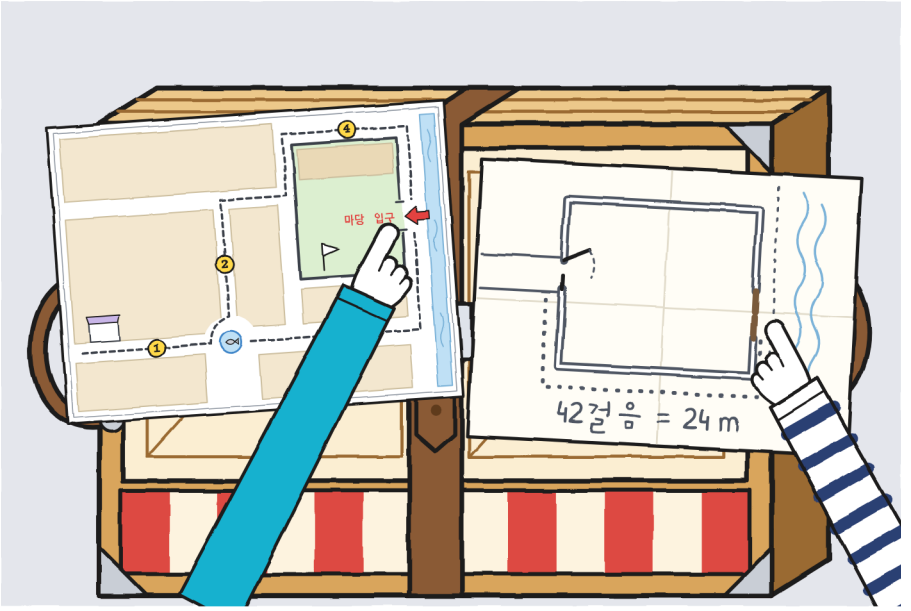
훌리타는 벨트를 보고, 나를 보고, 자기 쪽을 내렸다. 나도 내 쪽을 내렸다. 미니 극장은 인도에 납작하고 얌전하게 놓였다.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나는 내 약도를 노아의 지도 옆, 다시 책상이 된 미니 극장 위에 놓았다. 목요일부터 접지 않고 다니고 있어서 티가 난다. 공책 반을 차지하고 혀처럼 위로 삐져나온다. 대회 지도에는 입구가 하나만 그려져 있었고, 빨간 화살표가 있었는데, 철문이 아니었다. 옛 문이었다. 자물쇠가 달린 문. 화요일에 나 혼자 찾아서 이틀 동안 입을 다물었던 문.

"오래된 지도야." 내가 말했다. "저기로 들어가던 때 거야."

노아는 자기 것에, 나는 내 것에 손가락을 올렸다. 두 종이의 같은 자리.

거기서 철문까지는 노아의 걸음으로 마흔두 걸음이었다. 내 미터로는 24 m. 노아의 걸음과 내 줄자만 있으면 동네 전체를 잴 수 있다.



"이레네 선생님께 말할까?" 훌리타가 물었다.

이레네는 열 걸음 거리에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틀림없이 다 들었고, 누가 문장을 끝내기를 기다리듯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른 팀들한테도." 노아가 말했다. "안 그러면 걸어서 오는 팀들이 다 골목으로 들어가. 자전거랑 같이."

토요일의 골목을 상상했다. 다섯 팀이 각자 짐을 들고, 번개배송 자전거 셋이 문 앞에서 종을 울리는 모습.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의했다. 동의는 작대기를 남기지 않는다.

이레네는 마당 벤치에 앉아 무릎에 모든 지도를 올려놓고 빨간 매직으로 하나씩 고쳤다. 옛 화살표를 긋고 둘을 그렸다. 하나는 옛 문에 자전거를, 하나는 철문에 꾸러미를. 토뇨는 자기 것을 내 약도와 한 줄 한 줄 비교했다.

"번개배송은 지도에 나온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희는 거기로 들어가." 이레네가 말했다. "자전거에게는 지도가 맞았어. 우연히."

토뇨는 자기 지도를 쳐다보았다. 맞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맞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의 얼굴로. 번개배송에서는 그게 점수가 안 된다.



모퉁이로 돌아가서 세 번째 구간을 다시 했다. 이번에는 철문까지. 훌리타와 내가 들었고, 노아는 안내하고, 길을 열고, 알렸다. 한꺼번에.

"멈춰! 문짝 잡았어! 지나가!"

지나갔다. 측정기를 채웠다. '모퉁이 → 마당' 줄에 적었다. 구니와 훌리타, 노아, 노아. 그리고 넷째 칸에 '노아: "지도가 틀렸어"'. 이름마다 자기 색으로. 연필, 초록색, 청록색.

모든 칸이 다 찬 첫 줄이었다. 알림 칸은 목요일에 나 때문에 만든 건데, 처음 쓴 건 노아였다. 가장 또렷한 글씨로 노아의 이름을 적었다.

노아가 등으로 잡았어. 네가 화요일에 한 것처럼. 내가 적어 둘게. —J.



토뇨가 자기 종이를 보여 주었다. 맨 위에 대문자로 '다시 해야 했던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 수요일: 분수 회전, 3번.
- 금요일, 첫 번째 구간: 없음.
- 두 번째 구간: 없음(느림).
- 세 번째 구간: 입구. 팀 잘못이 아니라 지도 잘못.

그리고 맨 아래에 두 줄 밑줄. '가장 많이 다시 하는 건 걸음이 아니다. 안내다.'

"마지막은 의견이네." 훌리타가 말했다.

"데이터야." 토뇨가 말했다. "번개배송에서는 길을 잘못 말하면 두 번 값을 치러. 갈 때랑 올 때."

토뇨는 헬멧을 쓰고 자기 걸 연습하러 갔다. 첫 모퉁이에서 딸랑.



밤에 가게에서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상자에 넣었고, 상자는 다시 다른 것과 똑같은 상자가 되었다. 뚜껑이 내려오기 전에 노아가 버클을 보았다.

"내일은 세 번째 구멍에. 풀리는 데 더 오래 걸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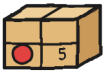
나한테가 아니라 버클을 보며 말했다. 내가 출발 전에 한 말이었다. 이긴 칸에는 적지 않았다. 노아가 자기 때에 자기가 정한 거라서, 그건 다른 열에 들어간다.

공책에서 작대기들 구석을 폈다. 나 빼고 정함 네 개와 그 아래 내 것. 오늘은 하나도 긋지 않았다. 계산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하듯 연필을 허공에 들고 하루를 되짚었다. 의견 충돌은 네 번이었다. 네 번 다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를 이겼다.

금요일. 충돌: 4. 말함: 4. 이김: 1.

선반 위에서 6번 상자는 도장 아홉 개 그대로였다. 아홉. 하나도 더 없이.

네가 이긴 건 따지기 전에 미니 극장을 바닥에 내려놓는 거였어. 그건 내가 줄게. —J.



제5장

일등으로 도착하는 게 중요할까?

토요일에 나는 토요일마다 입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었다. 미신이 아니다. 토요일에는 일이 생기고, 나는 매번 같은 차림으로 있어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공책이랑 잘 어울려." 훌리타가 말했다.

확인하려고 공책을 티셔츠에 대 보았다. 훌리타 말이 맞았다. 한 톤 차이로.

11시에 마당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 문이 다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두 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자전거는 운하 골목에서 옛 문으로,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인도에서 철문으로. 활짝 열린 옛 문은 누구보다 놀란 얼굴이었다. 담장에서 담장까지 깃발이 걸려 있었고, 도착점이라고 쓰인 팻말이 놓인 탁자가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가 보온병을 들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퍼레이드를 보러 와서 불꽃놀이까지 볼 생각인 사람처럼. 신발 가게 아줌마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베라 아줌마는 부스러기를

안고 있었고, 부스러기는 움직이는 것마다 머리를 돌렸는데, 그날 아침에는 전부 움직였다. 담장 위에는 까치 한 마리.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이레네가 벤치에 올라가 호루라기를 불었다. 학교 운동장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밑에 소리가 많이 깔린 고요.

"팀마다 모든 지점을 거쳐 짐을 여기까지 가져와야 해요. 짐을 들고는 뛰지 않아요. 뛰는 사람은 그 구간을 다시 해요. 그리고 다시 하지 않는 팀이 시간을 벌어요."

한 마디도 빼지 않고 적었다. 놀이의 규칙이 나를 위해 쓰인 것 같았던 건 처음이었다.



명단에는 다섯 팀이 있었다. 코르크판에 압정으로 꽂혀 있었다.

1. 번개배송 (소에, 토뇨, 브루노)
2. 합창단
3. 체크
4. 바늘들
5. 노아 + 2

번개배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자전거로. 합창단은 악보대를 들고. 체스 팀은 커다란 체스판을 들고. 바느질 팀은 머리 없는 마네킹을 들고. 우리 팀은 노아가 월요일에, 나를 알기도 전에 적어 둔 것이었다.

"우리는 '노아 + 2'야." 내가 훌리타에게 말했다.

"나는 2야." 훌리타가 말했다. "넌 플러스고."

이름과 숫자 사이의 작은 십자 모양을 보았다. 한 번도 기호였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걸 직책으로 적었다.

팀마다 자기 짐이 잠든 문에서 출발했다. 우리에게는 가까이 살고 뛰지 않는 안토니오 어르신이 출발 신호를 해 주었다.



가게 문 앞에서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상자에서 꺼냈고, 미니 극장은 길에서 쓰는 크기로 커졌다. 노아가 서둘러 벨트를 채웠고 우리는 들어 올렸다.

딸깍. 판 하나가 한 뼘 펼쳐졌다. 뭔가 생각난 입처럼.

"바닥에 내려놔!" 내가 말했다.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 우리 셋이 동시에, 천천히, 안에 달걀이라도 든 것처럼 내려놓았다. 두 번째에는 노아가 서두르지 않고 세 번째 구멍에 벨트를 채우고 시험하려고 두 번 당겨 보았다. 나는 버클을 보고 길을 보았다. 둘 다 괜찮았다.

안토니오 어르신이 베레모를 벗어 한꺼번에 내렸다. 깃발 대신이었다.

"천천히 가거라." 어르신이 말했다. "그래야 도착한단다."

마라 아줌마는 빈 상자를 옆구리에 끼고 맨 뒤에서 따라왔다.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더 커 보였다.

첫 번째 구간. 훌리타가 안내했다.

"다섯 걸음... 좌회전!"

"벨트!"

우리가 모퉁이를 통째로 차지한 채 절뚝이 물고기 둘레를 천천히 돌고 있을 때 소에가 자전거로 왔다. 모두를 제치고 맨 앞이었다. 소에는 브레이크를 잡고 한 발을 땅에 댔다.

"먼저 가. 그걸 들고는 뛰는 거 아니야."

소에는 우리가 커브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다. 우리는 20초 동안 소에를 앞서갔다. 소에가 직접 시간을 쟀다.

딱 멈췄어. 딸은 머리는 조금 더 걸렸지만. —J.

지점마다 카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빵집 지점은 엘리아 아줌마가 맡았는데, 밀가루 묻은 엄지로 도장을 찍었고, 카드가 반죽이라 쉬게 둬야 하는 것처럼 꾹 눌렀다. 우리 카드에는 흰 자국을 셋 남겼다. 머리마다 하나씩. 번개배송 카드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밀가루가 말라 있었는데도.

번개배송은 우리 앞을 세 번 지나갔는데 번번이 다른 길이었다. 미니 극장 뒤에서 보면 번개배송은 뻐꾸기시계 같았다. 나오고, 울리고, 들어가고. 토뇨는 두 손을 핸들에 얹고 모퉁이마다 종을 울렸다. 브루노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소에는 앞에서 가다가 지점마다 기다렸고, 셋이 다 모일 때까지 카드에 손대지 않았다. 두 번째로 지나갈 때 토뇨는 시계를 보지 않고 우리를 보았다. 그날 하루 중 토뇨가 낸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훌리타와 노아가 들었고, 내가 안내했다. 합창단이 악보대를 들고 우리를 앞질렀다. 뛰면서. 사방에 한꺼번에 있는 이레네의 호루라기가 울리자, 합창단은 작게 노래를 부르며 분수로 돌아갔다. 한 구간을 다시 해야 할 때 부르는 노래.

체스 팀도 우리를 앞질렀다. 체스판을 옆으로 세우고, 말은 우박 소리가 나는 자루에 넣고. 마네킹까지 우리를 앞질렀다. 가로로 누운 마네킹을 바느질 팀 셋이 발끝으로 들고 갔다. 마네킹이 자고 있는 것처럼. 머리 없는 마네킹에게 추월당하는 건 내가 잴 줄 모르는 경험이었고, 재 보려고 했다.

훌리타는 뛰지 않았다. 아니, 발이 저절로 나갔다. 도로 돌려놓았다.

"일등으로 도착하는 게 중요해?" 훌리타가 물었다.

"라벨에는 '일등'이라고 안 쓰여 있어." 노아가 말했다. "'접은 채로'라고 쓰여 있지."

"턱." 내가 말했다.

우리는 올렸다.

합창단은 노래하면서 그 구간을 다시 했어. 돌아올 때 음이 더 잘 맞더라. —J.



세 번째 구간. 노아가 철문까지 안내했다. 거기서 미니 극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가 열어?" 훌리타가 물었다. 그러고는 대답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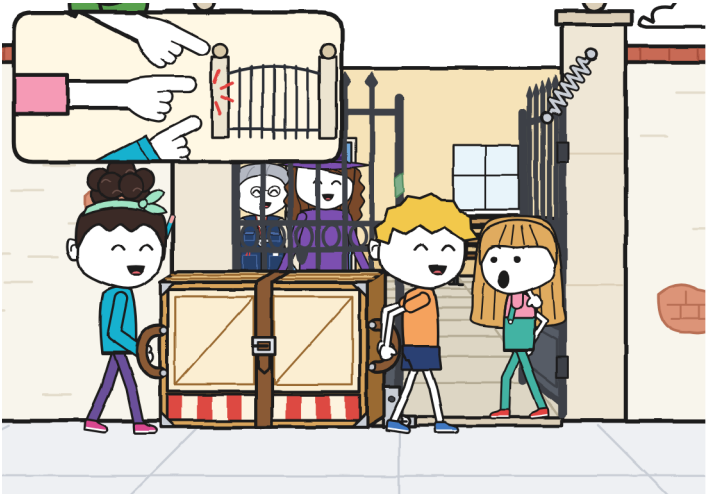
우리 셋은 동시에 가리켰다. 한 주에 세 번째였다. 화요일에는 각자 다른 곳을 가리켰다. 금요일에는 각자 다른 사람을. 이번에는 셋 다 같은 곳이었다. 노아도 철문을, 훌리타도 철문을, 나도 철문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웃었다. 이래서는 누가 할지 정해지지 않으니까. 문 하나를 가리키는 팔 셋은 문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의견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도 아니다.

"네가 해." 노아와 내가 말했다.

노아는 자기 손잡이 쪽으로 갔다. 훌리타는 등과 두 손으로 문짝을 붙잡았고, 발을 단단히 박았고, 이번에는 한 발도 나가지 않았다.

"멈춰! 문짝 잡았어! 지나가!"

우리는 통과했다. 접은 채로. 온전하게.



“41분.” 이레네가 말했다.

번개배송은 14분이 걸렸다. 셋은 자전거 옆 바닥에 앉아 땀도 흘리지 않고 있었다. 소에는 두 손가락으로, 브루노는 손 전체로 나에게 인사했다.

마라 아줌마가 상자를 옆구리에 끼고 왔다. 이레네는 자기 마당 바닥에 놓인, 접혀 있고 벨트가 제자리에 있는 미니 극장을 보았다. 오래 위에서 아래로 보았다. 먼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이 온전한지 확인하듯이. 서류철을 열어 마라 아줌마에게 기록부의 종이를 보여 주었다. ‘연극 공방. 담당: 이레네.’ 마라 아줌마는 늘 읽듯이 손가락으로 읽었다. 먼저 줄을, 그다음에 도장을. 훌리타가 초록색 매직펜을 건넸다. 지워지지 않는 그 펜.

“쓸모 있네요.” 이레네가 말했다. 그러고는 라벨에 서명했다.

라벨에 ‘배달 완료’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 둘레에는 마라 아줌마의 여행마다 하나씩, 반송 도장 아홉 개가 그대로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아무 데도 가지 않을 초록색 서명이 있었다.



이레네는 미니 극장을 적으려고 센터의 물품 목록을 열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미니 극장의 쪽이 있었다. 맨 위에 접이식 미니 극장 · 미수령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밑 ‘시험 기록’이라는 칸에 삐뚤삐뚤하고 아주 못 쓴 글씨로 쓴 오래된 한 줄이 있었다.

"마당에서 시험함. 접은 상태로 두 문을 지나감. 펼친 상태로는 못 지나감. —R."

우리 셋은 읽으려고 몸을 숙였고, 머리가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숙였다.

"내가 공방을 맡기 전 기록이야." 이레네가 말했다. "누군지는 몰라."

"저희도 몰라요." 훌리타가 말했다. "그래도 점점 알아 가고 있어요."

R.은 그 마당에 와서 보내기 전에 미니 극장을 시험해 보았다. 이번에는 두 문을 쟀다. 철문과 옛 문. R.이 아는 건 한 줄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걸 알아내는 데 일주일이 걸렸다.

엘리아 아줌마네 문. 마당의 문 두 개. 문을 재는 사람. 카드에 적어 둘 거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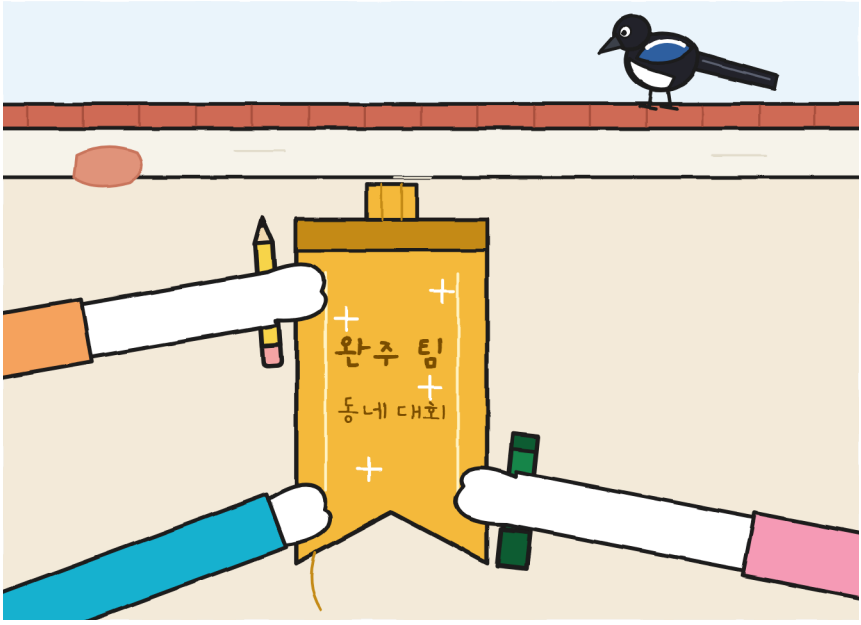
번개배송이 이겼다. 한 구간도 다시 하지 않았다. 상품은 엘리아 아줌마가 구운 큰 빵 한 덩이였고, 밀가루로 1이 그려져 있었다. 소에는 그걸 세 조각으로 나눴다. 브루노 몫이 소에 몫만큼 컸다. 눈대중으로 재 보았고, 조각 앞에서 내 눈은 틀리지 않는다.

짐을 온전하게 가져온 팀들에게 이레네는 리본을 하나씩 주었다. 우리 리본은 가까이서 봤다. 우리 셋이 같이 잡고 있었으니까. 연필 든 손, 초록색 매직펜 든 손, 청록색 소매의 손. 금빛 공단이었고, 숨을 가까이 쉬면 반짝임이 자리를 바꿨다. 위에 짧은 매듭이 있고, 가장자리는 벌써

실이 풀려 나오고 있었다. 멀리서도 읽히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완주 팀 · 동네 대회.

담장 위의 까치가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이해 못 하는 약도를 볼 때 하는 짓이다.

"완주 팀은 맨 꼴찌로 들어오는 팀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끝까지 갔다는 뜻이야." 노아가 말했다.

"우리는 꼴찌로 끝까지 왔어." 내가 말했다. "둘 다 맞네."

"이왕 여기 있으니, 첫 공연을 해 봐야겠네요." 이레네가 말했다.

마라 아줌마와 이레네가 옆 막대에 손을 대고 미니 극장을 펼쳤다. 딸깍, 딸깍, 딸깍. 그 주 내내 일부러 펼치는 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었고, 소리는 똑같았다. 미니 극장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나 보다.

우리는 그 뒤에 섰다. 공연을 지어낼 시간이 2분 있었다. 노아가 역할을 나눠 주었다. 그전에 물었다.

"누가 말 조금만 하고 싶어?"

나는 손을 들었다. 대회 전체에서 가장 빠른 손이었다.

부스러기가 베라 아줌마에게서 빠져나와 1미터를 날아 판 위에 앉았다. 아주 꼿꼿하게, 꼬리는 창 바로 앞으로 늘어뜨리고. 그 주에 그 틀로는 입에 음식이 가득한 토뇨와, 길 한복판의 노아와, 판 앞에서 잠든 안토니오 어르신이 보였다. 이번에는 부스러기의 꼬리. 틀은 나오면 안 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틀림없다. 그것이 공연이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베라 아줌마가 두 팔을 뻗어 부스러기를 잡았고, 부스러기는 얌전히 잡혀 주었다. 첫날 나한테서 베껴 간 '내가 안 그랬어' 얼굴로.



공연 제목은 '들어오기 싫어하는 택배'였다. 훌리타는 종이 고깔을 모자로 쓰고 마라 아줌마를 맡았다. 노아는 모든 문을 맡았는데, 발만 바꿔도 문이 전부 달랐다. 나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택배를 맡았다.

"공방이요?" 노아가 말했다. "여기는 바느질이에요."

"반송." 내가 말했다.

"공방이요? 여기는 합창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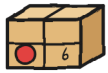
"반송."

나는 아홉 번 말했다. 관객이 세고 있었고, 합창단은 그러려고 왔으니 음을 맞추면서 세었다. 열 번째에는 노아가 두 팔을 벌렸고, 나는 다른 말을 했다.

인사하려고 우리 셋이 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다 들어갔다. 꽉 끼어서. 내 왼쪽 귀는 훌리타 것이었고, 오른쪽 귀는 노아의 올림머리 것이었다. 아래에서 진짜 모자를 쓴 마라 아줌마가 두 손가락으로 박수를 쳤다.



조각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조금씩 좁혀 앉는 거야. —J.



제6장

대회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오후에 우리는 라벨을 들고 가게로 돌아왔다. 노아도 같이 왔다. 노아는 수첩을 목에 건 채 문가에 서서, 소리 없이 입술로 손가락을 짚으며 선반의 택배를 세고 있었다.

훌리타는 팻말을 보았다. 그러고는 마라 아줌마를 보았다.

"제가 해도 돼요?"

"네 팻말이잖아."

훌리타는 파란 의자에 올라가 15를 지우고 크게 14라고 썼다. 마라 아줌마는 라벨을 자기 책에, 다른 다섯 장 옆에 붙이고 시트를 펴듯 손으로 두 번 쓸었다.

문가에서 노아가 세기를 끝냈다.

"열네 개." 노아가 아무에게도 아니게 말했다.

"열네 개." 훌리타가 의자 위에서 말했다. 매직펜 뚜껑은 아직 열려 있었다.

토뇨가 주민센터 도장이 찍힌 순위표를 가져왔다. 내가 공책에 옮겨 적도록. 1등 번개배송: 14분. 2등 체크: 29분. 3등 바늘들: 33분. 4등 합창단: 38분(한 구간 다시 함). 5등 노아 + 2: 41분. 나는 두 번 보았다. '브루노'는 지워지지도, 덧씌워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우리 팀 이름은 노아가 청록색 연필로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고쳤다. '+ 2'를 지우고 그 위에 '노아, 훌리타, 구니'라고 썼다.

"월요일에는 너희 이름을 몰랐어." 노아가 말했다. "아니, 구니 이름을."

나는 R.의 카드를 꺼냈다. 단서가 열한 개 있었다. 하나를 더했다. '12. 주민센터 마당에서 미니 극장을 보내기 전에 시험해 봤다. 물품 목록에 있다.' 토뇨가 그걸 읽었다. 더 아래에 있는 자기 글, 미결: 나한테 설명할 게 남았다도 읽고, 잉크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 밑으로 손가락을 지나갔다.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다.

"미니 극장은 시험해 봤구나." 토뇨가 말했다. "내 종은 안 해 봤고."

"그건 모르는 일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내 종에 대해서는 어느 물품 목록에도 한 줄이 없어." 토뇨가 말했다. 그것도 사실이었다.

그다음 나는 계산대 위에 약도를 펼쳤다. 아니, 이미 접혀 있지 않았다. 목요일부터 공책 안에 펼친 채 위로 삐져나와 다녔지만, 접은 선 자국은

창문처럼 열십자로 남아 있었고,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 약도는 자기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기억한다.

한 모서리는 줄자로, 반대쪽 모서리는 연필통으로 눌렀다.

"네 몫이 빠져 있어." 내가 노아에게 말했다. "분수에서 저쪽 부분. 난 그 길들은 미터밖에 몰라."

그 말은 연습한 말이 아니었다. 생각한 말이었다. 그건 다르다. 공연 중에, 창으로 얼굴을 내밀고, 여섯 번째 '반송'과 일곱 번째 '반송' 사이에서.

노아가 훌리타를 보았다. 훌리타는 천장을 보았다. 끼어들지 않는 훌리타의 방식인데, 가게 천장이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는 관심으로 보았다.

"여기에 그려도 돼?"

"그래서 보여 주는 거야."

나는 두 손으로 약도를 노아 쪽으로 밀었다. 노아는 귀 뒤에서 연필을 뽑아, 종이에 대지 않고 잠깐 허공에 들고 있었다. 자기 문이 아닌 문을 두드리기 전에 손이 멈추듯이. 그러고는 내려놓았다.

그 종이에 다른 연필이 닿은 건 처음이었다. 청록색 연필심이 내려올 때마다 나는 줄자를 그 모서리에 조금씩 더 눌렀다. 약도는 어디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훌리타가 알아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훌리타에게 그건 아주 시끄러운 알아채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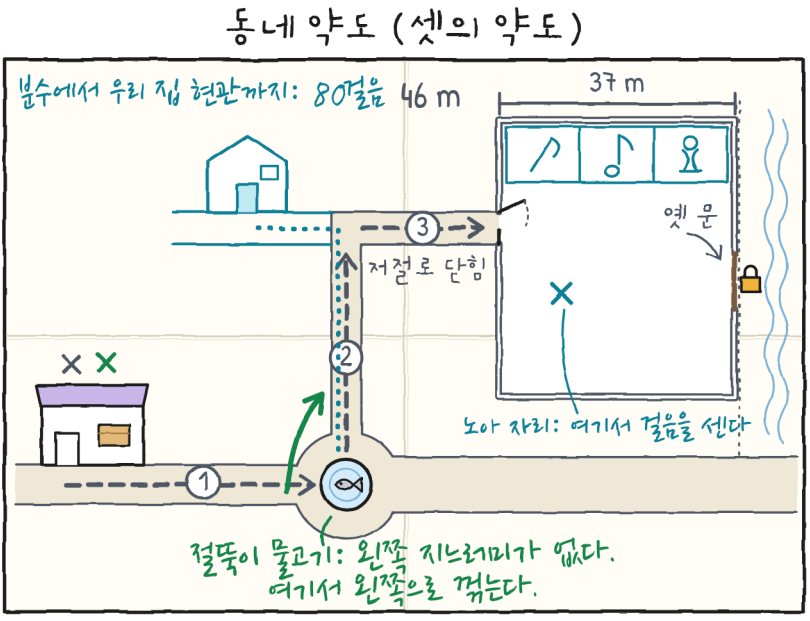
노아는 자기네 길, 안쪽의 연습실과 마당과 둘을 잇는 복도를 덧붙였고, 거리를 걸음으로 적었다. 작고 곧은 글씨였다. 글자 하나하나가 타일 한 칸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옆에 미터를 적었다. 노아가 '분수에서 우리 집 현관까지: 80걸음'이라고 적자 나는 그 옆에 '46 m'라고 적었다. 80에 58을 곱하면 46.4다. 예의상 내림했다. 내 약도에 처음으로 단위가 둘 생겼고 둘 다 틀리지 않았다. 마당에서 노아는 청록색 작은 십자를 그렸다. '노아 자리: 여기서 걸음을 센다'.

훌리타는 더 참지 못했다. 매직펜 뚜껑을 열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분수 옆에 초록색으로 적었다. '절뚝이 물고기: 왼쪽 지느러미가 없다. 여기서 왼쪽으로 꺾는다.' 가게에는 십자가 둘 생겼다. 하나는 연필, 하나는 초록색. 닿을 만큼 바싹 붙어서.

위에는 '구니의 약도'라고 되어 있었다. 그 밑에 새 이름을 적었다. 동네 약도 (셋의 약도). 괄호는 내 생각이었다. 괄호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이 그리는 동안 절뚝이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둘이 동시에, 계산대 양쪽에서 말했고, 나는 네트 옆에서 경기를 보듯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돌렸다. 길다. 사람들 말만큼 재밌지는 않다. 그래도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안다.

엄청 재밌어. 우리가 이야기를 엉망으로 했을 뿐이야. 서로 말을 가로챘거든. —J.



훌리타는 낮부터 리본을 손목에 묶고 있었다. 벌써 실이 세 가닥 풀려 있었다. 훌리타도 세고 있어서 나도 셌다. 멜빵바지 주머니에 하나 걸릴 때마다 작은 소리로 셌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월요일엔 실밥만 남을 거야." 훌리타가 말했다. "공책에 보관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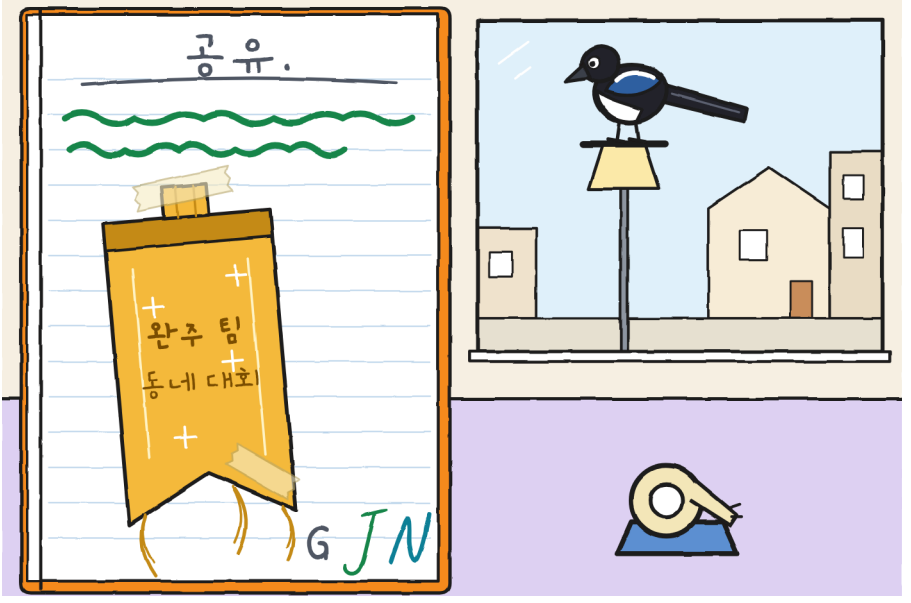
우리는 리본을 첫 쪽의 '공유' 밑, 반 쪽을 차지한 초록색 글씨 밑에 양쪽 끝을 테이프로 붙였다. 노아가 한쪽 끝을, 훌리타가 다른 끝을 잡았고, 나는 테이프 두 조각을 똑바로 붙였다. 매듭은 위쪽에 약간 볼록하게 남았다. 옆 쪽을 넘길 때마다 반짝임이 자리를 바꿨다. 한

모서리에 작은 이니셜 셋을 적었다. G는 연필로, J는 초록색으로, N은 청록색으로.

시험해 보려고 공책을 덮었다. 잘 안 닫혔다. 매듭이 불룩해서 뚜껑이 한 모서리에서 조금 들렸다.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백에 '결함'이라고 적었다가 지웠다.

풀린 실까지 그렸다. 다 풀리면 풀리는 거다. 실제보다 새것으로 그리지는 않을 거다.

유리창 너머로 담장의 까치가 가로등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아니라 리본을 보고 있었다. 나도 까치였다면 같은 걸 봤을 테니까 알 수 있었다.



내 공책은 네 공책처럼 잘 안 닫혀. 그래서야. —J.



노아가 공책을 뒤로 넘겼다. 그전에 허락을 구했다. 공책 위에 손을 펴되 닿지 않은 채로 있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씩,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천천히 넘겼다. 화요일의 측정기, 수요일의 초록색 줄, 담장 조각과 자물쇠 반쪽이 있는 마지막 쪽, 목요일의 새 칸. 작대기가 있는 모서리에 이르렀다.

"이건 뭐야?"

노아의 손이 그걸 가리기에 딱 맞는 거리에 있었다. 나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잘못 세던 계산이야."

"그럼 이건?" 노아가 소리 내어 읽었다. "'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

"화요일에 생각한 거야."

훌리타는 의자에 대고 흔들던 다리를 멈췄다. 토뇨는 자기 상자에서, 아무것도 재고 있지 않던 시계에서 눈을 들었다.

"돌멩이는 '턱'이라고 말하지 않아." 노아가 말했다. "'멈춰'를 열다섯 번 하지도 않고."

노아가 늘 말하는 방식으로, 세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책을 있던 자리에 두는 사람처럼 쪽을 앞으로 넘겨 다시 리본으로 돌아갔다.

나는 작대기를 지우지 않았다. 연필로 쓴 거라 지울 수 있지만,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 문장 밑에 작은 돌멩이를 그리고 말풍선을 달았다. 비워 두었다.

지우지 마. 조금은 내 거야. —J.



일요일 해 뜰 때에는 주민센터 맞은편에 사는 노아가 지켜보았다. 9시에 가게에 쪽지를 가져왔다. 걸음을 세면서 온 것 같았다. 입술로 알 수 있었다. 쪽지는 똑같은 세 부분으로 접혀 있었다. 확인해 봤다. 청록색으로, 작고 곧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 7:38: 미니 극장, 공방에서, 접힌 채로.
- 7:44: 해가 뜸. 움직이지 않음.
- 7:50: 그대로. 걸은 걸음: 0. —노아

내보다 잘 지켜. 내보다 잘 세. 빵은 안 만들고. 셋 중 둘. —J.

마라 아줌마가 우리를 들여보내려고 셔터를 반쯤 올렸고, 나는 선반을 그렸다. 택배 열네 개와 빈자리 여섯 개. 1번부터 6번까지 나란히, 차례로 빠지는 이처럼. 팻말은 손댈 필요가 없었다.

"여섯."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러고는 책을 덮었다.

토뇨는 일요일인데도 헬멧을 쓴 채 자기 상자에 앉아 있었다. 노아는 문 옆에 서 있었다. 아무도 노아에게 앉으라고도, 가라고도 하지 않았다. 노아는 오고 싶어서 왔고, 월요일에는 연습이 있다.

공책을 마무리하려고 미니 극장의 창을 그렸다. 비어 있는 창을.

자를 대고 그렸다. 틀, 한쪽으로 모아 둔 짧은 막, 결이 있는 나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주에 처음으로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창이었고, 계단에서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릴 때 문을 열어 두듯 잠깐 그렇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먼저 나를 연필로, 한쪽에 그렸다.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서는 자리다.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밖에서 잴 수가 없으니까. 진지하고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나왔다. 내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하고 싶은 모습이다. 고치지 않았다. 자리를 넉넉히 남겨 두었다.

그러고는 공책을 연필을 가로로 얹어서 계산대 위에 둘 쪽으로 펼쳐 두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뒤에서 마라 아줌마는 보지 않았다. 필요도 없는 정성으로 잉크병을 정렬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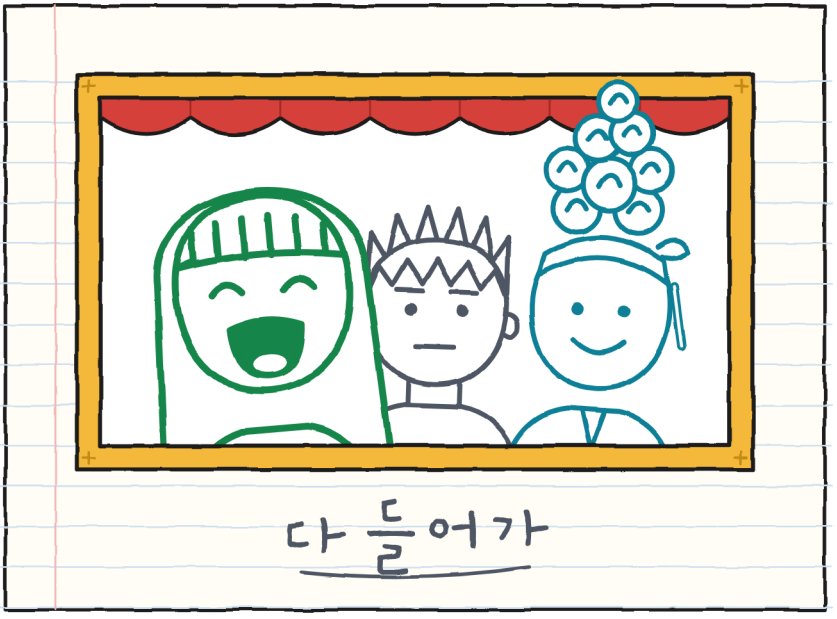
노아는 내 공책에 그리기 전에 허락을 구했다. 훌리타는 아니었다.

훌리타는 초록색으로 자기를 그렸다. 입을 벌리고, 다른 둘보다 더 크게. 자기 말로는 실제로도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노아는 남은 자리를 손가락 두 개로 쟀다. 작은 것을 잴 때 하는 방식으로. 그러고는 그 안에 청록색으로 자기를 그렸다. 올림머리가 틀 위로 삐져나갔다. 고치지 않았다. 노아에게 틀은 위쪽이 늘 작고, 노아는 그걸 안다.

토요일 진짜 창에서는 우리가 다 들어갔다. 꽉 끼어서. 내가 자리를 넉넉히 남겨 그린 종이 창에서도 똑같이 꽉 끼었다. 넉넉한 자리는 아무도 쓰지 않았다.

그 밑에 연필로 단어를 하나 적었다.

다 들어가.



공유는 공유야. 첫 쪽에 쓰여 있잖아. -J.

표가 남았다. 내 모든 공책을 끝내는 표. 이번에는 이번 주 내내 재 온 방식대로 구간별로 만들었다.

6번 배달. 구간별로(누가 들었나 · 누가 안내했나 · 다시 해야 했던 것):

- 가게 → 절뚝이 물고기 분수: 구니와 노아 · 훌리타 · 분수 회전 (3번).
- 분수 → 모퉁이: 훌리타와 노아 · 구니 · 없음(그런데 천천히).
- 모퉁이 → 마당: 구니와 훌리타 · 노아 · 입구: 지도가 낡았음.
- 토요일: 셋 모두 · 셋이, 돌아가며 · 벨트(두 번째에, 세 번째 구멍).
- 우리 전: 마라, 혼자 · 아무도 · 아홉 번 운반.
- R.: ? · ? · 모른다.

맨 아래에는 셋 측정기를 그렸다. 네 칸이 다 차 있고, 세 이름이 자리를 바꾼 채로.

칸이 셋. 아니, 넷. 이름은 셋. 빈 칸은 없음. —J.

불가능 배달.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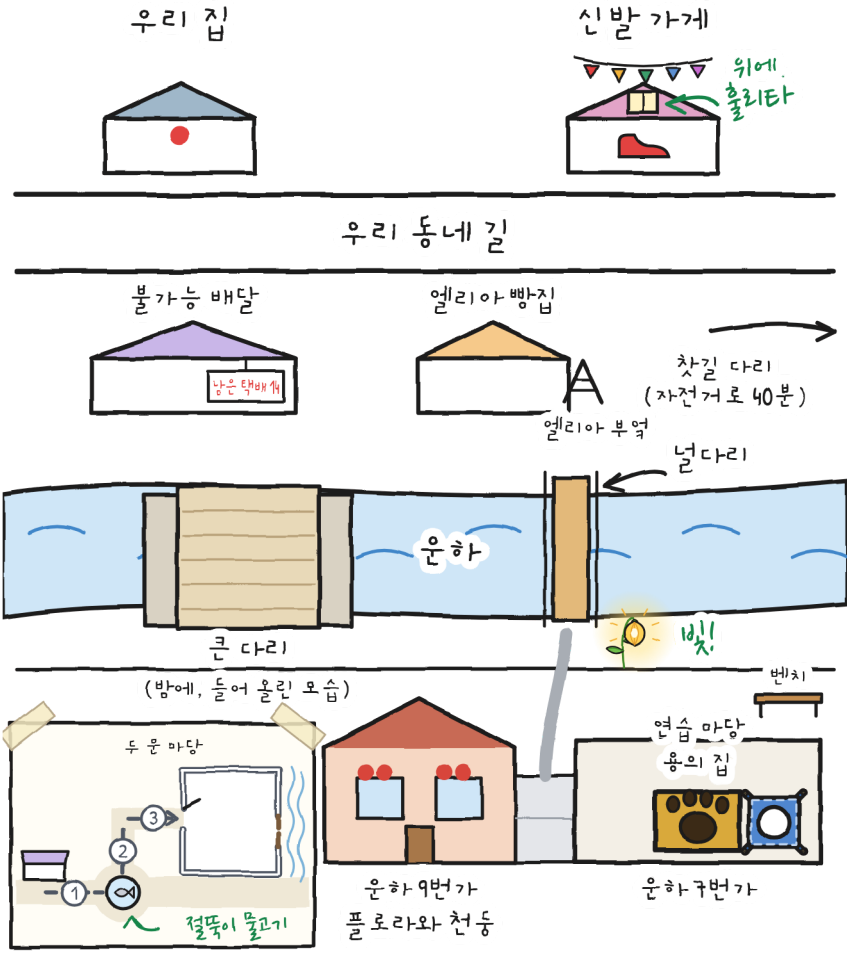
(곧 나옵니다)



이번 라벨은 내가 이미 잠옷을 입고 있을 시간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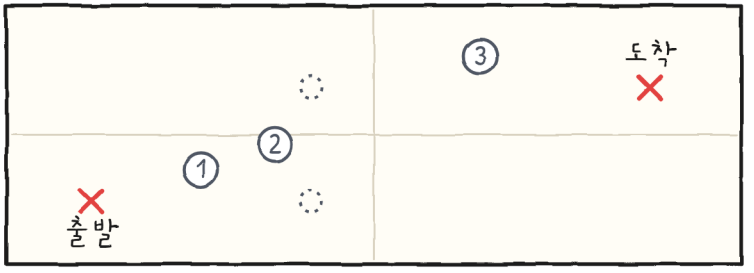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이 문 닫을 때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구지? 나 말고. —J.

동네 (여섯 번째 판)


우리 집
신발 가게
위에 홀리타
우리 동네 길
불가능 배달
낡은 택배 차
엘리아 빵집
찾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엘리아 부엌
널다리
운하
큰 다리
(밤에, 들어 올린 모습)
빛!
벤치
두 운 마당
3
2
1
절뚝이 물고기
운하 9번가
플로라와 천둥
연습 마당
용의 집
운하 7번가

너의 경로

누가 들까? 누가 안내할까? 누가 길을 열까? 누가 알릴까?



셋 측정기

	들기	안내	길 열기	알림
구간 1				
구간 2				
구간 3				

한 칸에 늘 같은 이름이 나오면 바꿔.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이 책에는 여섯 가지 사이즈가 있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쪽마다 들려주는데, 갈수록 이야기가 더 섬세해진다. XL은 소설이다. 같은 이야기에, 구니가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담을 자리가 있다.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XXS, pre-A1 · XS, A1 · S, A2 · M, B1 · L, B2 · XL, B2–C1.

각자 자기 사이즈로. 미니 극장은 같아.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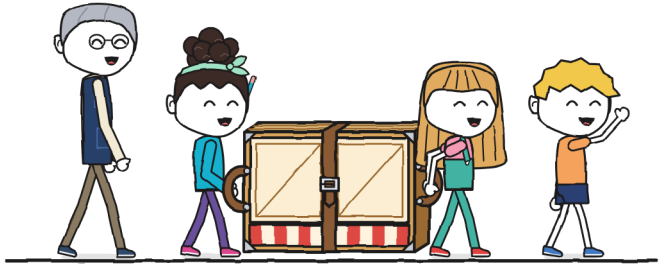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L 사이즈의 활동 포함)

진짜로 옮길 때 해야 할 일

1. 나가기 전에 길 전체를 살펴봐.
2. 한 사람은 짐 없이 앞서 가며 문을 열고 알려 줘.
3. 손은 손잡이에. 경첩과 걸쇠에서 멀리 떼.
4. 짐을 들고는 뛰지도, 겨루지도 마.
5. 누가 '멈춰'라고 하면 모두 멈춰.
6.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따져.
7. 큰 물건은 어른과 함께 두 사람이 펼치고 접어.

'이야기 속에서만' 도장은 이야기에서는 일어나도, 진짜로 옮길 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표시해.



그리고 길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먼저 말해. —J.